

초등

박병주 선생님_김천동부초등학교



Vol. 20 | 2023 | 겨울호
선생님을 위한 수업 혁신 전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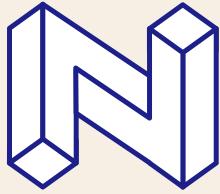
여신 수업



Talking Point
교육언극

Mirae N

혁신
수업



Vol. 20 | 2023 | 겨울호 | 초등



왼쪽 QR코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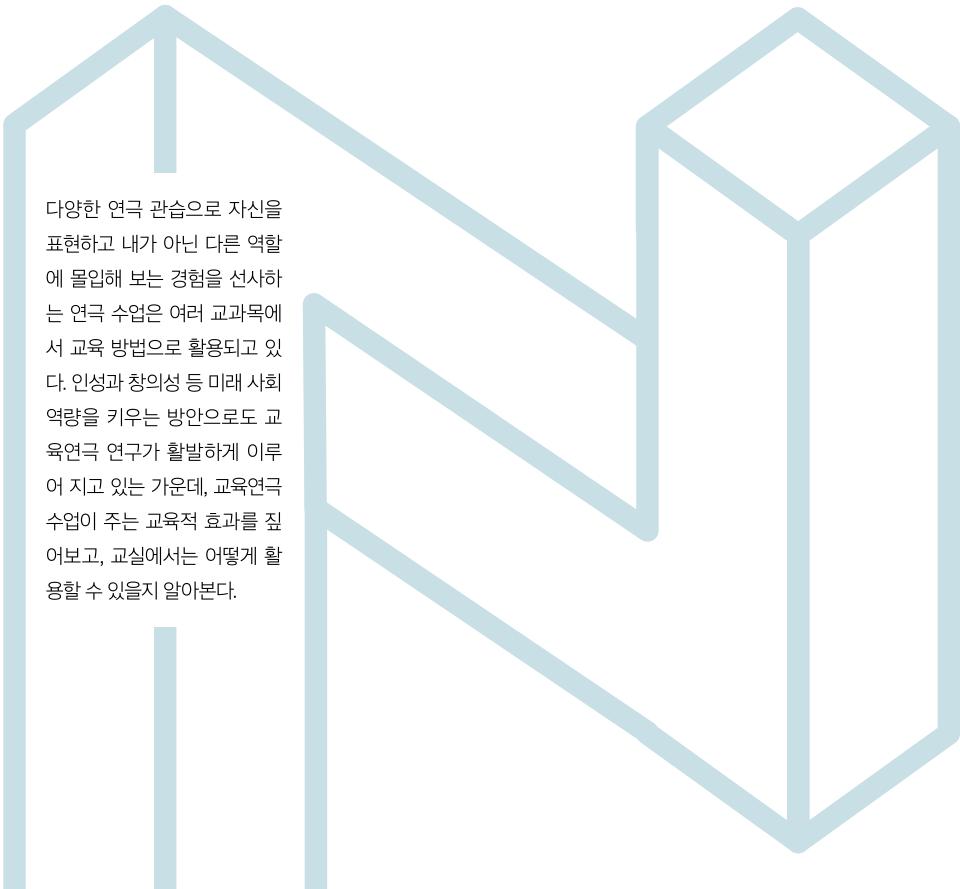
엠티처의 혁신수업N 웹진 바로보기

에 들어오세요.

다양한 교육 정보와 수업 사례를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TALKING POINT

교육연극



다양한 연극 관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내가 아닌 다른 역할에 몰입해 보는 경험을 선사하는 연극 수업은 여러 교과목에서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성과 창의성 등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도 교육연극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연극 수업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짚어보고, 교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04 PEOPLE

용감하게 실패하며
성장하는 교육연극 이야기
_ 박병주 선생님

12 COLUMN

수업을 바꾸고 싶다면,
교육연극에 도전하라
_ 권경희 선생님

20 학교 사례

자신의 개성을 펼치고
꿈과 끼를 발산하는 연극
_ 천안 가온초등학교, 서채연 선생님

30 특별 인터뷰

이야기 극화 수업으로 살아나는 교실,
연극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연극 이야기
_ 유지훈, 이윤미, 이광용, 이현경 선생님

40 수업 사례 01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육연극
_ 김미주 선생님

52 수업 사례 02

말랑말랑 교육연극
수업 이야기
_ 김현아 선생님

64 수업 사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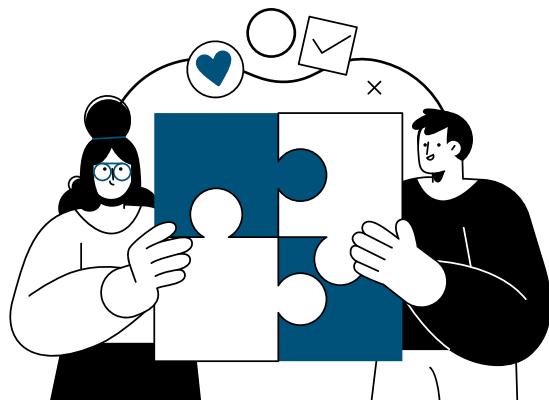
무작정 시작했던
첫 연극 수업
_ 송칠섭 선생님

86 알쓸 많知

수업에 잘 쓰이는
연극 관습 모음
교육연극,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도할까?

**COVER PEOPLE**

박병주 선생님
(김천동부초등학교)
박병주 선생님이 『혁신수업N』의
표지 인물로 선정된 배경과 교사
로서의 철학 등 자세한 이야기는
4쪽 'PEOPLE'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92 교육뉴스

2023년 4분기 교육 분야 뉴스
교육부,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발표

96 학급경영

긍정 훈육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적 개입과 자연적 결과
_ 김성환 선생님

104 에듀테크

AI 디지털 교과서
톺아보기
_ 조재범 선생님

114 수업놀이

즐겁게 암기하는
반복 학습 활동
_ 이종혁 선생님

124 REVIEW_교과서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활용한
실생활 연계 과학 수업하기
_ 백기령 선생님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활용한
알차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하기
_ 조상현 선생님

136 추천 도서

138 NOW MIRAE-N
150 독자 후기
151 NOTICE



용감하게 실패하며 성장하는 교육연극 이야기

박병주 선생님(김천동부초등학교 교사)

박병주 선생님은 '소나키워', '뻘짓' 등 각종 교육연극 모임에서 활동하며 수업에 대한 부담은 덜고, 재미는 더할 수 있는 교육연극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업에 유용한 연극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며 몰입을 이끌어 내는 선생님의 교육연극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김천동부초등학교 교사
- 경북지역 교육연극 모임 '소나키워' 회장
- 교사영상제작단 '뻘짓' 단원, 전국교사연극 모임 회원, 스텝매직 회원
- 티처빌 '저는 교육연극이 처음인데요' 강사, 행복교실 강사, 에듀콜라 필진
- 저서 『깃털쌤의 이야기가 있는 교육연극 수업』, 그림책 『방귀파워 뿩』 등

#상상 #경험 #몰입 #성장 #교육연극

교육연극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말이나 특별한 날이면 한 번씩 연극을 보러 가는 편이긴 했지만, 직접 연극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사 연수에서 교육연극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속 한 장면을 조각상이나 사진처럼 만들어 보는 '정지 장면 만들기'를 봤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장면을 만들고 강사의 리드에 따라 조각상들이 즉흥적으로 한마다씩 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업이 이렇게 재미있고 역동적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 재미있는 소재를 교실로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한다면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교육연극에 관심이 많아져서 교사 모임도 만들고, 관련 연수가 열린다고 하면 전국 팔도 어디든 배우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육연극과 연극 교육은 수업의 지도 방법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부터 신설된 연극 단원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극 단원 수업을 할 때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본 없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선생님이 연극 단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저한테 좋은 대본이 있는지 문의도 하세요. 그런데 대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교육연극 수업에서 역동적으로 신나게 몰입하던 아이들이 대본을 주니까 오히려 대사를 틀릴까 봐 신경 쓰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 없이 아이들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즉흥성'을 재료로 연극 단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꿉놀이를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소꿉놀이는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누가 코치를 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가족의 역할을 나누고 바로 상황에 몰입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보고 듣고 겪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친구와 싸웠던 일, 부모님께 혼났던 일과 같이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연극 소재로 삼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채워 넣으며 연극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교육연극을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연극은 공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연극 수업을 하는 것과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극이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유는 ‘학생들이 연극적 경험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거든요. 교육연극 수업을 무대 공연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들은 부담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연습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연극이라 하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를 잘하고 발표를 잘한다는 것은 공연으로서의 연극의 관점입니다. 수업에서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연극을 활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연극적 상황을 잘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연극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의 발표가 어설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연기 그 자체보다는 아이들이 만든 장면에서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볼까요? 단순하게 왕자와 무도회에서 춤을 주는 장면을 만들어 보는 데 머물지 말고,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왕자는 신데렐라의 어떤 모습에 반하게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장면 깊숙이 들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질문을 던져 주세요. 그렇게 연극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에 더 몰입감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극에 활용할 만한 준비물이 부족한 교실에서는 ‘상상하고 변형하기’도 필요합니다. 교실에는 자동차도 없고 운전대도 없지만,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장면을 나타낼 때 의자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척만 해도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필통을 들고 마시는 척을 해도 되죠. 부족한 물건은 있다고 상상케 하는 움직임과 마치 실제 물건처럼 보이게 하는 변형으로 보완해서 진행해 보세요.



교과목과 교육연극을 연결하여 수업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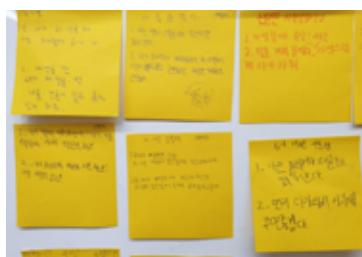
특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 감상’ 수업에서 교육연극은 탁월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의 시 수업은 보통 재미있는 표현을 찾거나 글쓰기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교육연극을 통해 시의 여백을 마음껏 상상해 보고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재로 자주 쓰는 ‘염소 탓’이라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와 다투 후에 집을 나와 버린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기 멎찍어서 괜히 키우던 염소를 앞세워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과연 염소를 탓하며 집으로 향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어색함을 잘 풀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상상해 보면서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염소 탓’을 소재로 교육연극 수업을 구성해 보았어요.

먼저 교육연극의 ‘인물 만들기’ 기법을 활용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어떤 사람일지, 외모나 성격, 자주 하는 말 등을 자유롭게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평소 무슨 일로 자주 다투었는지 까지 생각하면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걸려서 혼나는 장면, 할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계산까지 하고 와서 부부싸움 후에 집을 나온 장면 등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만들면 이해도가 높아서 즉흥적인 상황극도 만들기가 쉬워요. 염소를 앞세워 갔던 할아버지가 다시 할머니에게 쫓겨났다는 설정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고민 해결소의 직원이라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할아버지에게 사과와 화해의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시를 체험하는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시에서 느낀 것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요. ‘염소 탓’을 교육연극으로 배우면서 아이들은 사람마다 화가 풀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는지 알려 주기 위해 ‘나 달램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내가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를 적도록 해서 교실에 게시해 두니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보다 쉽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연극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선생님의 역할이 있을까요?

‘제한하기, 살펴보기, 약속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교육연극 기법에 ‘정지 장면 만들기’와 ‘핫 시팅’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적용하면서 저 역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장면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장면을 만들다가 아이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적절한 제한’이에요. 특히나 처음 적용할수록 제한을 많이 주는 것이 좋고, 점점 자유도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극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때 교사는 활동 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서, 과제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제한 속에서 아이들은 더 즐겁게 상상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는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가 아니라 “요리, 청소, 빨래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을 골라 신데렐라가 집안일로 구박을 받는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장면을 만드는 시간을 준 뒤에는 중간에 교사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죽이거나 싸우는 장면 등을 넣어 막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한 상황을 만드는 건데,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와 같이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약속하기’입니다. “이 의자에 앉는 순간 ○○(이)는 우리 친구 ○○(이)가 아니라 작품 속 친구인 ‘동동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동동아, 안녕~’이라고 외쳐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아이들 대부분 작품 속 인물과 친구를 구분해요. 교육연극에서는 약속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는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동이 안녕?”, “동동이는 몇 살이야?”, “(작품과 관련해서) ~한 일이 있었던 것 맞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상황에 몰입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살펴보다가 중간에 적절히 개입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육연극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보인 변화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선생님의 교직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교육연극을 계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학기 말이 되면 항상 어떤 수업이 좋았는지 조사를 해요. 그런데 매번 이 조사를 할 때마다 내성적이고 부끄럼 많은 아이가 ‘연극이 재미있었다, 또 하고 싶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교육연극 수업을 하는 동안 표현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거나 성격이 확 바뀌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기 초에는 꼼짝 않던 아이가 학기 말이 되면 한두 발자국 정도 움직이고, 한두 마디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였던 거죠. 소극적인 아이에게도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표현의 씨앗을 싹틔워 주는 것, 이 맛에 교육연극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열심히 사는 교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교육연극을 만난 뒤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말로 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는데, 교육연극 수업으로 진행하면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열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컸어요. 저 역시도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교육연극이 낯선 선생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연극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감독이 연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교사의 역할은 영화감독, 연극 연출에 가까운데 선생님들은 주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관객으로서 많이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연극을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연기를 하는 것과 동일시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연출의 역할은 이미 수업자로서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연극 수업 역시,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연극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설계자이자 진행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황과 역할을 주는 것’에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극 기법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연극 기법 중에는 연기를 하는 것 외에도 교사의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방을 꾸며 보는 활동도 있고,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탐구해 보는 등 다양한 연극 기법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는 연극적 체험을 직접 경험해 보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하면서 부담 없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용감하게 실패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연극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법이 한 번에 딱 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연수 강사들의 노하우를 막상 내 교실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해 보고 잘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복기해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뒤에 해 보기를 몇 번 반복한다면 자기만의 교육연극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교육연극 모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경북지역에서 ‘소나키워’라는 교육연극 모임을 만들어 8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나 학급경영에서 적용할 만한 교육연극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직접 공연을 하는 회원들도 생겨서 교육팀과 공연팀 두 개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관객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즉석에서 배우들이 보여 주는 즉흥 연극 ‘플레이백시어터’라는 저희만의 시그니처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공연이 궁금하면 학교로 불러 주세요.

초등학교는 각자 반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뭔가 섭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서 속 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는 삶을 공유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사 연극 모임들이 모여 있는 ‘전국교사연극모임’에서는 방학 때 4박5일 정도 연수를 진행합니다.

‘전교연’은 무엇보다 사람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산만하고 사고 잘 친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교연’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아이디어가 재미 있다고 반응해 주더라고요. 그동안 못 들었던 칭찬을 이곳에서 다 들은 느낌이었어요. 그 따뜻한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역에서 ‘소나키워’를 만들기도 했고, 초창기 모임을 운영해 나갈 때 도움을 많이 준 따뜻하고 고마운 단체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극은 연극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그림책, 소설,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이나 미술,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글이나 그림, 음악으로 산출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최근 3년 정도는 아이들과 시 쓰고 글 쓰는 작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쓴 시로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쓴 시로 우리 반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하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더 열심히 글과 시를 쓰는 동기 부여도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출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그림책을 출간했는데요. 교육연극 수업을 설계하고 연극 공연을 직접 만들면서 어느 순간 1차 창작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이나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느낌이 오는 그 순간을 잡아서 글감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교연’ 연수에서 1인극으로 먼저 만들어 보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책으로까지 출간이 되었어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나와는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가 글로 쓰거나 노래로 만들면서 1차 창작물을 완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래서 그 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있어요. 이런 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 ‘저 교사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N

*박병주 선생님의 활동과 수업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짓TV 유튜브

youtube.com/@TV-fx5et/about



수업을 바꾸고 싶다면, 교육연극에 도전하라

1. 진짜 필요한 미래 교육 역량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AI 교육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열기 는 날마다 업데이트된다. 교육부는 2025년에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지자체는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무료로, 그것도 서둘러 배부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양 바삐 움직인다. 한발 나아가 교실마다 AI 보조교사를 두어 교사의 업무를 줄여 주고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 준다지만, 그 서두름이 염려스럽다.

‘미래 교육 = 디지털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전력 질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묻고 싶다.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은 왜 우리처럼 AI 교과서를 모든 학생에게 보급하지 않는지, 왜 수업에서 태블릿 PC 사용을 제한하는지, 왜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모둠 활동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이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디지털 각축장이 되어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향은 무엇 인지, 무엇이 세상을 공공성과 안전성으로 지켜 줄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찾는 일일 것이다. 함부로 조타수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신중과 검증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좋은 줄 알고 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라고 판단할 때는 이미 학생의 희생이 따르고 있음을 역대 교육 정책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국가에서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었는데도 마스크를 벗



권경희

성남 탄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교육연극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 좋은 수업’을 화두로 삼고 있다. 교육연극으로 수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며, 교사와 예술 강사가 함께 하는 교육연극 협력 수업을 기획했다. 현재 성남 문화재단에서 해당 사업의 책임 멘토를 맡고 있다. 또한 교육연극과 더불어 학교의 수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업 코칭을 강조한다. 관리자를 위한 수업 코칭, 교사를 위한 수업 동아리 등 현장의 수업 혁신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 『수업의 모든 것, 수업을 탐하다』를 집필했으며, 『교육연극, 프로젝트 수업을 만나다』를 공저했다.

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질병 탓이 아니라 학생들의 움츠러든 마음과 극복하지 못한 관계성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관계 맷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를 신중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적 지원인지 의문이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너무 과하게 디지털 기기와 가까이 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필자가 수업 코칭을 10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늘 내재된 의문이 있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지, 배움이 생각을 키워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사는 매일 죽어 있는 수업을 하느라 녹초인 것과 같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학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친구들과 머리와 몸을 맞대어 궁리를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교육연극 수업으로 그런 경험들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시대는 교과별 분과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배움의 시간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쥐어짜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탐구를 향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수업이 교육연극이다.

물론 모든 수업 주제가 교육연극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교육연극만이 해법도 아니다. 다만 모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삶의 균력이 될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면 디지털 활용 능력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지적 학습과 의사소통 역량, 예술적 창의성을 함께 키워 갈 수 있는 수업으로 교육연극을 제안한다. 수업의 변화를 꾀하는 교사라면 교육연극에 도전해 보기!

2. 배움의 과정에서 주인으로 세우는 교육연극 수업

교과서를 보면 숨이 찬다. 1학년 국어 교과서만 보더라도 한글을 재미있게 차근차근 습득할 여유가 없다. 교과서의 많은 내용을 진도에 맞게 지도하느라 교사들의 마음은 바쁘다. 수업 메커니즘을 보면 악순환이다. 배움 목표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영상 자료도 보여 주고, 학습 지도도 가열차게 하는데 왠지 수업은 공회전을 도는 느낌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바쁘게 돌아 가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수행 평가와 시험을 치고 나면 배운 것들은 휘발되어 버리는 현실, 심지어 수행 평가에 들어가는 활동에만 전념하는 학생들도 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학생들의 마음에 배움으로 달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학생들은 억지로 성급하게 쑤셔 넣는 학습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타자화된 학습 내용에 ‘나’와의 연결망을 상실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배움의 과정이 학생들의 머리와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교육연극 수업은 학생들을 배움의 과정에서 주인으로 세운다. 교육연극 수업의 과정에는 ‘사물이 되어 말해 보기, 상황을 상상하여 몸으로 표현하기, 모둠이 함께 즉흥극을 만들어 발표하기, 이미지로 상상하기’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동시에 작동시켜야 하는 활동이 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혼자 할 수도 없다. 함께 굴렁쇠를 굴리는 것과 같다. 각자 굴렁쇠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수업이다.

3. 교육연극은 수업일까, 놀이일까?

혹자는 연극 놀이와 교육연극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묻는다.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본고에서는 수업의 측면에서 교육연극을 풀어 보고자 한다. 물론 수업자에 따라 교육연극을 놀이로 전개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교육연극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놀이 수업이 좋을 수 있지만, 고학년의 경우 자칫 교육연극 수업 시간을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교육적인 필요에 따라 수업 안에 놀이 시간을 내포하거나 일부분 놀이를 활용하는 것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업을 재미있는 놀이로만 하게 되면 수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필자는 교육연극이 학교 현장에 놀이나 동아리 활동이 아닌 수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연극 수업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연극이 수업으로 정체성을 가지려면 재미와 더불어 배움과 질문이 있는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재미만 추구해서는 반쪽짜리 수업이 된다. 교육연극이라는 예술적·극적 행위를 통해 재미와 지식, 태도를 함께 습득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미국의 분과 주의를 모방한 체제로 여전히 교과의 지식을 분절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융합적 인간형을 내세우지만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융합적이지 않다. 더 이상 교과를 내용 교과, 도구 교과, 표현 교과식으로 구분 지어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수학 수업은 문제를 풀어하는 도구 교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논리력과 수리력을 키우고, 문장제 문제를 통한 문해력을 익히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을 배우는 통합적인 역량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융합적인 수업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교육연극은 매우 쓰임새가 있다. 인지 활동, 극적 체험과 표현, 나아가 소통 역량까지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둘째, 교육연극 수업은 연극 만들기나 연극 공연이 목적이 아니다. 국어 교과서에 있는 연극 단원의 대사를 외워서 무대를 꾸미고 공연으로 발표하는 수업과는 구분해야 한다. 즉 교육연극 수업과 연극 만들기를 구분해야 교사들의 수업 기획에 방향이 분명해진다. 교육연극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 주제를, 일상적인 수업 시간에, 교육연극을 활용해서 일반 학생들이 연습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연을 목적으로 연극을 만드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교육연극 수업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대사를 외워서 하거나 무대 연출을 꾸며서 하는 ‘특별한’ 공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실험 수업도 하듯이 교육연극도 그렇게 활용되는 수업 방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 왜 학생들은 교육연극 수업에 몰입하는가?

잠시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자. 동일한 수업 주제를 일반적인 수업 흐름과 교육연극으로 하는 수업이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 어떤 수업에 몰입하게 되는지 천천히 음미해 보면 좋겠다. 두 가지 수업 사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수업은 3학년 미술 감상 수업이다. 이 수업은 처음부터 교육연극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 아니라 미술 감상 수업의 단조롭고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사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극에 재능이 있는 교사가 교육연극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변화를 시도하는 교사가 도전한 사례이다.

일반적인 미술 감상 수업은 교사가 감상 작품을 제시한다. PPT나 실물 화상기, 교과서 그림을 함께 보고, 영상으로 관련 그림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어서 그림에 관련한 학생들의 느낌을 발표하고, 교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과정은 학습지를 통해 작품을 변형시켜 만들거나 색깔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활동을 한다. 수업 소감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일반적인 미술 감상 수업과 달리 교육 연극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본교 1학기에 실행한 교육연극 수업으로,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업자는 피테르 브뢰헬의 ‘아이들의 놀이’를 감상 작품으로 제시하며, 그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장은 교육연극적 체험에 해당한다.

수업 주요 질문
및 활동



- 1)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일까?
- 2) 그림 속 아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 **그림 속 장면을 직접 동작으로 표현해 보기**
- 3) 내가 작가가 되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 4) 모둠 활동
- **그림 속 숨어 있는 놀이를 찾아라!**
- 5) 내가 그림 속 주인공 되어 보기
- **그림 속 인물이 되어 동작을 표현하고, 인물이 되어 속마음 말하기**
- 6) 오늘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나누기

이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은 그림 속 장면에 푹 빠졌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고 그림을 보며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신체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감상을 교과서와 PPT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장면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고, 그림 속 인물이 되어 그 상황의 느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색다른 공부 방식이었다.



위의 사진은 한 남학생이 그림 속 장면처럼 팽이를 돌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 팽이채를 휘두르듯이 주먹을 쥐고, 양다리를 벌리고, 힘껏 팔을 휘젓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어울리는 속마음을 “팽이야 쓰러지지 말고 계속 쟁쟁 돌아라, 신나게 돌아라. 내가 열심히 칠게.”라고 말했다.

이처럼 극적 체험을 곁들여 감상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미술 작품을 친숙하게 느낄 것이고, 예술적 상상력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수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강조하는 창의력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고, 탐색하고, 상상하고, 실험하는 활동이 쌓였을 때 창의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이는 교육연극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수업은 5학년 사회 역사 수업이다. 5학년 학생들이 한국사의 고대사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습득해야 하는 고난도의 교과 내용이다. 반만년 한국사는 수많은 국가의 건국과 멸망사, 주변 국가의 약탈과 침략사, 왕조사 등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도 버거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역사 수업은 교사들에게 어렵다. 내용이 방대한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 교사는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여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역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조사 학습을 과제로 제시하고,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PPT로 요점 정리하여 배우고,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활용하여 개념과 퀴즈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에 공감을 하거나 과거의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내용은 없이 빠대만 남은 형해화된 지식의 한계가 이러한 역사 수업에서 확인해 드러난다.

그래서 필자는 3.1운동을 주제로 교육연극 수업을 기획해 보았다. 이 수업은 5학년 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여 연극적 체험을 더욱 극대화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장은 교육연극적 체험에 해당한다.

수업 주요 질문
및 활동



- 1)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진으로 열기: 광화문 → 광화문 광장 응원 장면 → 3.1운동 장면
- 2) 1919년 당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당시의 또래 아이들의 생각과 하루를 상상하기(정지 장면)
- 3)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 4)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 또래 아이들/농사짓는 사람/지식인들/군인들/궁궐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즉흥극)
- 5) 3.1운동으로 달라진 것들
- 6) 마무리



위의 사진은 학생들이 1919년에 살았던 당시의 아이가 되어 걷기 동작을 하다가 정지한 모습이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일본군이 돌아다녀서 집에 숨어 있다.”며 일본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동작을 나타내고, 엄마 아빠가 만세 운동을 하러 나가 집에 훌로 있는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지금까지 사회 수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적 상황 속으로의 몰입을 경험한 것이다. 교과서에는 3.1운동과 관련하여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 등 일본의 강압 정치에 대한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은 나열되어 있으나 시대를 공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연극은 역사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내가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등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상상하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만들며, 몸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로 수업에 활용된다. 이런 이유들로 학생들이 당연히 오감을 자극하는 교육연극 수업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5. 교육연극 수업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는 가치의 카오스 상태에 살고 있다. 인문뿐만 아니라 기후와 국제 정세까지도 하나같이 예측이 어렵다. 이런 종체적인 불안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공교육의 위상과 목적마저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좋은 사람(시민)으로 키우는 것인지 경제 발전에 맞는 경쟁력 있는 인재만을 양성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시대에 편승하여 교육이 한쪽 쓸림 교육을 지향할 경우, 결핍의 희생은 모두 학생들의 몫이 된다. 이런 쓸림 교육을 융합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연극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연극 수업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주도성이다. 교육연극 수업은 배움의 과정에 ‘나’를 주체적으로 연관시킨다. 주도적인 삶의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미래의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앞의 수업 사

례에서 보았듯이 정답만을 외우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를 ‘나’에게 둔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한다. 배움의 과정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하면서 죽은 지식을 의미 없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로 연결하며 생각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둘째, 몰입이다. 배움의 과정에 타자화되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참관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이다. 정지 장면을 만들고, 즉흥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 속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정답이 없는 상황이므로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몰입할 수 있다.

셋째, 관계성이다. 교육연극 수업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단절된 관계성과 사회성을 회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수업 방법은 없다. 형식적인 모둠 활동이나 학습지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몸으로 결과물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창의성이다. 교육연극에 동일한 수업은 없다. 3.1운동으로 여러 학급이 수업을 해도 그 안에 만들어지는 즉흥극과 정지 장면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르다. 예측 불허이다. 학생들의 잠재된 예술성과 재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수업이기도 하다. 정교한 예술적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들, 해 보지 않았던 상상들,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움직여 보는 것 자체가 수업의 변신이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깨우는 지렛대이지 않을까.



천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4학년 학생들. 배려는 공감이다. 배려는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힘든 마음을 안아 주는 것이다.

6. 맺는말

필자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교육연극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믿는다. 교육연극으로 배움의 시너지를 만들고 조화로움으로 상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익명이 판치는 디지털 세상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말과 몸으로 올곧게 펼쳐 낼 수 있는 삶의 근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연극 수업으로 학생들의 작은 마음 근육 하나씩을 다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고민하는 하루이다. **N**

자신의 개성을 펼치고 꿈과 끼를 발산하는 연극 - 천안가온초등학교

천안가온초등학교

2020년에 연극 동아리 '하나'를 창단하여 문화 예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연극을 무대로 확장 시켜 활발한 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창의성을 키워 가고 있다. 2020년 '활짝 웃다'를 시작으로, 2021년 '새야새야', 2022년 '널 모를 리가 있겠니'를 거쳐 2023년에는 '야카시야 꽃잎은 떨어지고' 공연으로 충남 학생 연극 발표 대회에 참가하는 등 무대 연극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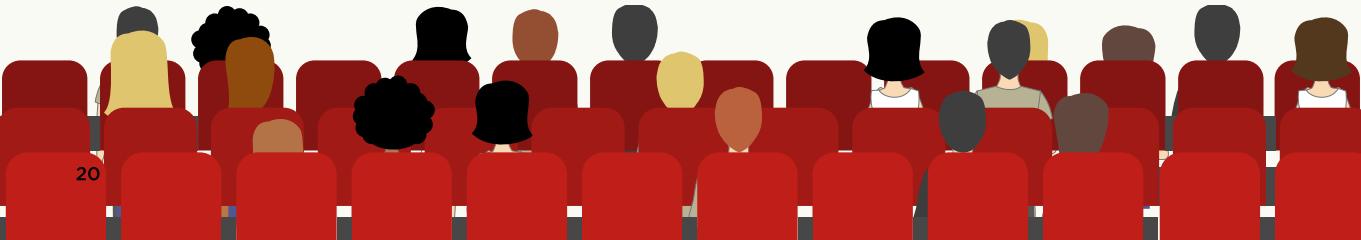
서 채 연

천안가온초등학교 교사이다. 선배 교사의 추천으로 2022년부터 연극 동아리 '하나'의 지도 교사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연극의 '연자도 몰랐던 저경력 교사이지만 한 해 한 해 열정으로 부딪혀 가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 중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신체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는다. 본교에서는 현재 고학년(4~6학년)을 주축으로 연극 동아리를 구성하여, 연극 수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종 연극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가온초 연극 동아리의 1년을 소개한다.

단 '하나'뿐인 연극 동아리, 우리는 '하나'

'하나'는 연극 동아리 창단 멤버들이 지은 동아리명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학년과 반, 성별, 취미,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연극 동아리 '하나'의 1년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





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연극부 운영 계획	■									
연극부원 선발	■									
기초 다지기	■	■	■							
연극 대회 연습				■	■	■	■	■	■	■
예술 공연						■	■	■	■	■

본교에서는 3월에 연극부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강사를 채용하며, 연극부원을 선발한다. 3~5월에는 학생들이 연극과 친해지고 다양한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 다지기로 연극 놀이를 많이 접하게 한다. 6~8월은 공연할 작품의 대본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무대를 위해 연습하는 기간이다. 9월부터는 세부 연기를 다듬고 마침내 공연을 펼친다.

새 학기와 함께 펼쳐지는 연극부원 선발 오디션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연극부원 선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오디션을 거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오디션 운영 방침과 오디션 진행 순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대충 해도 되는 장난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중요하고 엄격한 자리임을 느끼게 한다.

[오디션 운영 방침]

1. 오디션 순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추첨한다.
2. 전체 학생에게 오디션용 대본을 배부하며, 연습 시간 10분을 부여한다.
3. 순서대로 오디션에 응하며, 다른 지원자가 오디션을 보는 동안 연습은 불가하다.
4. 오디션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며, 표현력(10점), 전달력(10점), 태도 및 준비성(10점)으로 총점 30점(가산점 제외)을 매길 수 있다.
5. 충청남도 학생 연극제에 참여한 적 있는 지원자는 경력자로 우대하여 경력 1년에 1점(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오디션 진행 순서]

1. 오디션 안내 및 오디션 연습(10분)
2. 오디션 시작
 - 발표자는 발표 무대, 나머지는 관객석으로 이동한다. 기다리는 동안 연습은 할 수 없다.
 - 20초 이내 자기소개(학년, 이름, 특기 등)
 - 오디션 대본을 읽거나 외워서 발표(자신감 있게, 목소리 크게 발표)
3. 자기 순서가 끝나면 바로 귀가
4. 합격 결과는 문자로 발송



오디션 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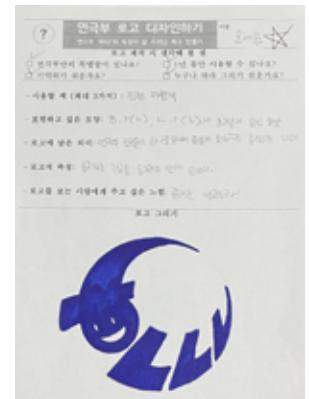
대본1 (온사 중얼거린다) 어디 있지? 여기 있을 텐데... (종이 한 장을 발견) 찾았다!
연극부, 2학년 4반 교실...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휴... 아냐. 됐다. 관두자.
이런 수입 하나 듣는다고 내가 정말 배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난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정말
연기를 해보고 싶어.

소속감과 단합력을 기르는 연극 미션 활동

연극부원 선발 오디션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방과후 연극 교실에 모이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어색한 분위기 속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연극 동아리의 이름과 뜻을 알아본다. 그리고 미션을 준다. 바로 '연극 동아리 로고 만들기'이다. 이는 학급 운영을 할 때도 매우 효과를 본 방법인데, 연극 동아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역시나 소속감과 단합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각자 자유롭게 로고를 그려 보고 투표를 통해 우리 동아리와 가장 어울리는 로고를 뽑는다. 투표로 선정된 로고는 연극 동아리의 단체 티, 안내장, 기념품 등에 수시로 쓰인다.



연극 동아리 로고 만들기 활동



당선작



연극 대회 기념품(USB)

직접 만든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채 수업도 듣고, 다 함께 연극 대회 소책자용 사진도 찍었다. 작은 미션 활동이지만 로고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동아리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다.



직접 만든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는 모습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연극 놀이

동아리 ‘하나’의 활동은 연극 놀이반, 연기 수업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극 놀이는 단순한 재미 외에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 먼저, 연극 놀이는 연극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연극에 마음을 열도록 해 준다. 점차 연극과 친해지게 만들어 수업 시간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연극의 다양한 방식이나 규칙, 약속을 학습하도록 한다. 연극 수업 시간에 활용한 연극 놀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고리 풀기	몸을 이용하여 꼬여 있는 팔을 풀며 친구들과 친해진다.
고양이와 쥐	술래가 고양이가 되어 쥐(다른 모든 친구)를 잡는 게임. 표현력을 올리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소통한다.
몸짓 도미노	맨 앞 사람의 동작을 뒤에서 차례로 따라 하며 표현한다. 동작과 함께 이름을 말하여 이름을 쉽게 외운다.
얼굴이 망가져요	서로 마주 보고 선생님이 부른 단어(감정)를 표정으로 표현한다. 서로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며 웃기도 하고 따라 하기도 하며 친해진다.
유령 열차	동그랗게 앉아 눈을 감는다. 기장을 한 명 뽑고, 그 기장은 뒤에 따라올 친구의 등을 친다. 청각에 집중하여 전부 열차가 되고 자신만 남아 있을 것 같을 때 눈을 뜦다.
장님과 조각가	한 사람은 조각 작품, 그리고 한 사람은 장님 조각가가 된다. 조각가는 눈을 가리고 상대방을 만져 상대방의 자세를 유추하고 이를 스케치북에 표현한다.
한밤의 결투	신문지를 말아 눈을 가린 채로 오직 소리에 집중하여 상대방과 결투를 한다.
나처럼 해 봐요	술래가 간단한 동작을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
거울	2인 1조가 되어 서로의 모습을 따라 한다.
사진을 이용한 즉흥극	사진에 나와 있는 상황을 즉흥 연극으로 만들거나 사진 속 장소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상황극으로 표현한다.

배역 오디션과 본격적인 연극 연습

연극 대본이 나온 후에는 전체 내용을 읽어 보며 배역 오디션을 준비한다. 맡고 싶은 역할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작성하고, 연기를 하고 싶은 대사를 골라 적어 온다. 무릇 연극에 도전하는 학생들이라면 너도나도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므로 역할 선정에 있어서 연기력과 전달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연기력이 비슷하다면, 배역에 어울리는 외모와 목소리를 갖추었는지를 그 다음으로 본다.

오디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원하는 역할을 가져가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연극 강사와 지도 교사의 연기 합이 잘 맞아야 한다. “연기를 모두가 다 잘해서 고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역할의 분위기가 긴 머리를 가진 이 친구와 딱 맞지 뭐예요?”, “비중이 적어서 속상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 대사는 더 추가된답니다.”와 같이 학생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역할을 배분한다.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은 연극 동아리에 있어서는 특별 훈련 기간이다.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 동안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생들은 발성의 기본기를 다지고 각 장면 별로 동선과 세부 연기를 다듬게 된다. 학생들이 연습으로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연극 놀이도 함께 진행한다.



여름방학 특별 수업

연극 무대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과 몰입

9월에는 충청남도 학생 연극 축제가 열린다. 충남의 지역별 연극·뮤지컬 발표회가 펼쳐지는데 본교 동아리는 매년 천안시 발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30분짜리 공연에 우리 모두의 6개월 동안의 노력을 담는다. 방학이 끝나 가면 학생들은 자신이 입을 의상을 정하고, 연극 강사와지도 교사는 소품과 무대를 준비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공연 무대를 접하기 어려웠던 만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하고자 2023년 올해 대회에는 우리 학급 전원을 관객으로 데려갔다.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한 경험이 없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관객이 있어서 더 긴장되고 떨린다고 했지만 들뜬 모습이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제 대사를 듣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싸우는 장면에서 ‘헉’ 소리가 들렸어요.”와 같이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몸소 느낀 연극의 특성을 공유했다.



의상을 입고 좋아하는 부원들



관객과 함께 기념 사진



천안시 발표 대회 공연 장면

관객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연극 공연 관람 소감문을 살펴보면, 처음 접한 연극인데도 연극의 주제와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친구들의 연극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연극에 더욱 몰입하고 생생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소감문.
> -처음에 작품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워 들었다. 나중에도 어려워 좋지 않았을 것 같다. 특히 남편을 살피면서 시도 작품이 아팠으나,
그리고 마지막엔 작품도 충분히 잘 적응하고 온도감도 전개하는데도 잘 생각했고, 어떻게 그 내용, 대사 하나하나를 표현까지 잘 한 연극 관람에 대한 것 같다.

〈소감문〉
시급학교의 대회에는 넓고 열광적였다. 사과리를 쓰는 데에 국수는 대학교도 있었다. 그런 학교에 전학온 그들이는 학교와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 수업이를 재미있는 대사, 힘들 때 서로의 갈애 웃어죽여 재미있던 친구들.. 아직서는 꽃잎이 떨어지는 가을데 있는 소리를 보며 나도 같이 흐뭇해지는 시급학교 미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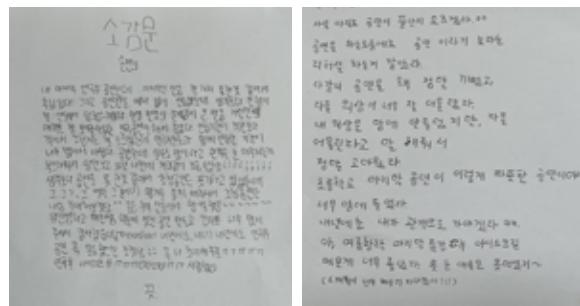
연극 공연 관람 소감문

각자의 다짐과 소감을 전하는 종강 파티

공연을 마친 후에 종강 파티를 열어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종강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소감문을 써내려갔다. 오디션에 자신이 없었는데 합격해서 믿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부터 맡게 된 배역이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 점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연극부가 있으면 꼭 하겠다는 다짐까지 각자의 개성만큼 느낀 점도 다양하게 나온다.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그동안 정이 들고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보인다. 학생들의 진심 어린 소감과 눈물에서 성장했음을 고스란히 느낀다.



종강 파티 모습



6학년 소감문



4학년 소감문

본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하며,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자 한다. 친구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곧 나의 가치와 의미가 될 정도로 또래 관계에 민감하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연극 수업은 소속감을 느끼며 협력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이다. 6학년 학생들은 맏이가 되어 “네 차례가 아니더라도 공연에 집중해”, “지금 나가야 해.”라며 동생들을 이끈다. 5학년 학

생들은 둘째가 되어 선배의 말에 눈치껏 행동하고 동생들을 귀여워하며 챙긴다. 4학년 학생들은 막내가 되어 예쁨과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춤을 추고 끼를 펼친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작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즐거움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4~6학년 학생들은 자아 개념이 발달하여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남들과 비교하며 객관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점점 자신의 관심사도 명확해진다. 이때 연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은 자기 자신과 동아리,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연극 동아리 부원인 한 학생이 귀띔해 준 이야기가 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무얼 하고 싶은지를 잘 몰랐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져 자기 존중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5학년 때 작은 역할이지만 연극에 참여하고부터는 “내가 재미있게 잘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라는 진로를 생각 중이며 덩달아 성격도 많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천안시 대표 공연 준비



천안시 발표 대회 교육감상 수상

연극 수업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 주었다. 학년이 올라가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하려고 하며, 누가 시킨다고 하여 열심히 하지 않는다. 또 맡은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이 선택하여 오디션을 보고 들어온 만큼, 연극 동아리 학생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나누어 준 대본을 일주일 만에 달달 외워 온 학생,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프더라도 “목소리를 작게 내도 괜찮을까요?”하며 연습에 나오는 학생, 연습을 못 하는 날에는 직접 교실로 찾아와 소식을 전하는 학생 등 책임감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책임감과 노력이 모여 연극 무대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올해 10월 우리는 충청남도 학생 연극 축제 천안시 발표 대회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본교에서는 공감과 인성을 키우는 연극 수업, 예술적 재능 계발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연극 무대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갈 것이다. **N**

이야기 극화 수업으로 살아나는 교실, 연극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연극 이야기**

유지훈(인천서화초등학교 교사), 이광용(도수초등학교 교사),
이윤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이현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교육연극 수업에는 연극 놀이부터 이야기 극화까지 다양한 표현 활동이 있습니다. 이 중 ‘이야기 극화’는 학습자가 직접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그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거나 이야기 속 상황을 장면으로 만들며 교과 목표에 도달하게 합니다.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이야기 극화 수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교 수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초등 교사와 예술 교육 강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교육 극단에서 활동하며 이야기 극화 수업을 다룬 도서의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선생님 네 분을 만나 생생한 교육연극 수업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이광용, 이현경, 이윤미, 유지훈 선생님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유지훈** | 초등학교에서 교육연극을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연극하는 선생님’ 유지훈입니다.

| **이윤미** | 15년 차 예술 교육가 이윤미입니다.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며 예술 교육과 예술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광용** | 초등학교 교사이자 15년째 연극·뮤지컬 아마추어 배우로도 활동하는 이광용입니다. 연극과 뮤지컬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 **이현경** | 예술가이자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의 공통점은 교육연극 중에서도 ‘이야기 극화’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극화를 활용한 교육연극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유지훈** | 저는 대학원에서 처음 이야기 극화를 접했는데요,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하기 적합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림책 수업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 온 책 읽기, 독서 단원, 문학 작품을 다루는 수업처럼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극화 수업이 선생님들의 교육연극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연구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윤미** | 2009년에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통해 이야기 극화 수업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극화 수업은 학생들이 이야기 속 사건과 등장인물을 표현하며 예술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연극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야기 극화 수업을 해 보니 학생들이 연극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 학생들의 생생한 수업 소감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수업 방식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야기 극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야기 극화 수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반응이 좋았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유지훈** | 이야기를 신체 언어로 구현해 보는 활동을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연극 관습 중의 하나인 ‘해설이 있는 팬터마임’이나 ‘원형 즉흥 릴레이’는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 주면 그것을 학생이 즉흥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는 활동인데,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 친구들과 동 시다발적으로 표현을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아 학생들이 무척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극화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소감이 “선생님, 수업하는 것 같지 않고 놀아서 좋아요.”였어요. 물론 수업 목표나 주제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놀아서 좋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요.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니까, 교과서로만 하는 수업이랑은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이 단순히 ‘배운다’라기보다 깊게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욱 학생들에게 교육연극을 접하게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 **이현경** | 저는 ‘흉내쟁이 도깨비’ 수업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흉내쟁이 도깨비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동이가 도깨비를 만나기 전에 책상 아래에(이야기에서는 천장이지만 수업에서는 책상으로 대체) 숨어 있기도 약속한 장면이 있어요. 동동이 연기가 조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1, 2학년 학생들이 책상 아래

에서 정말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학생들이 얼마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역할로 몰입한 학생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징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예술 교육의 힘을 느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너희 어떻게 그렇게 오래 조용히 잘 숨어 있니?”라고 신기해하셨지요.

또 학생들이 도깨비 그리기 활동을 무척 좋아했어요. 성별을 정하고 이름 지어 주기도 하며 그렇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도깨비를 만드는 것을 흥미로워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은 없고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12개 반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각 반의 도깨비 모습이 정말 모두 달랐던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흉내쟁이 도깨비 수업이 끝나고 도깨비 그림을 치우려고 하니 학생들이 치우지 말고 교실에 걸어 놓자고 하더라고요. 학생들과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수업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선생님들은 교육연극과 관련해서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나요?

| 이광용 | 무엇보다 교육연극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 자체도 생소한데, ‘교육연극’이라 하니 거의 외계 생명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육연극을 전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배우는 거냐며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 이윤미 |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교육연극 관련 참고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문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 책을 추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연극 책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수업 준비물이 너무 많아서 실제 수업에서 실행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교육연극과 관련한 수업에서 따라하기 쉬운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넷이 머리를 맞대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곧 출간 예정입니다.

곧 출간될 교육연극 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유지훈 | 교사, 예술 교육가,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연극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임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옆 반 선생님께 교육연극 수업을 권하면 “그건

선생님처럼 연극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동료 선생님께 아주 상세하게 적은 지도안을 나눠 드리고 직접 교육연극 수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열었어요. 워크숍을 통해 교육연극 수업 진행을 익힌 선생님들이 다음날 바로 학급에 적용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다른 수업안도 있어요?”, “이런 수업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교실에서 그대로 따라 하면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연극 실용서를 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 이윤미 | 오랫동안 교육연극 수업을 했지만, 예술과 교육의 균형점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예술 교육가라서 예술적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풍부했지만, 교사는 아니기에 교과 과정과 연계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교사들은 저와 반대로 예술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예술 교육가가 협업한다면 예술과 교육의 균형을 이룬 책을 완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교육연극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연극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책에 담겨 있나요?

| 이광용 | 교육연극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이야기 극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극화의 소재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옛이야기를 가져와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전체 12개의 이야기 극화 수업이 있는데, 대상·소요 시간·주제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 놓아서 상황에 맞는 수업을 골라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물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극적인 효과와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감히 최고의 교육연극 실용서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 이현경 | 교육연극과 이야기 극화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가이드 형태로 구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하우를 가득 담았답니다. 그리고 교육연극을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이 쉽고 친숙하게 수업에 적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흥미로운 전통 이야기를 통해 현대에 필요한 인간적 가치나 도덕성, 그리고 교훈 등을 교육연극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옛 이야기를 이야기 극화 소재로 담으셨는데요. 옛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교훈을 전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이광용** | 옛이야기 속 인물들은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필수 품이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의 지혜와 슬기는 여전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옛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의 시대적 분위기를 익히며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 **이현경** | 우리가 쓴 책의 각각의 이야기 맨 앞부분에 귀여운 삽화와 함께 해시태그(#)로 학생에게 강조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교훈을 적어 놓았어요. 욕심, 인과응보, 사랑과 지지, 슬기로움, 편견, 정직함 등 다양한 가치를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냥 읽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이 쉽게 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각자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수업을 위한 교육연극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유지훈** |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의 앞부분에 교육연극 수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념하며 수업해야 하는지를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지루하면 읽다가 중간에 책을 덮을 것 같고, 또 너무 뻔한 이야기와 저자만의 생각을 기술하면 교육연극에 대해 편협한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수많은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 **이윤미** | 예술과 교육의 균형점을 맞추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용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술 교육가와 교사 모두를 위한 책이 되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술적인 활동과 교육적인 활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사와 예술 교육가의 협업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수업을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의 도입부터 본 활동, 활동과 활동을 이어 주는 연결 활동 그리고 마무리 활동까지 친절한 발문도 필요합니다. 교사는 예술적인 활동을, 예술 교육가는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광용 | 맞아요. 교육과 예술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에 연극을 접목하려는 교사 두 명과 연극에 교육을 접목하려는 예술 교육가 두 명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교육과 연극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자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해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때는 현실성, 실제로 교실에서 실행이 가능할지를 기준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교육적이면서도 예술적이고, 거기에 더해 현실적인 책을 쓰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 이현경 |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교육연극에 접근하기 쉽게, 수업하기 편하게, 교육가들이 자치지 않고 꾸준히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연극으로 수업을 할 때 공연 만들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대 위의 공연과 같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수업 과정 안에서 멋진 연극 예술적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교육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연극 책 출간을 앞두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교육연극 책을 직접 집필해 보니 소감이 어떤가요?

| 유효훈 | 2022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기획하고 완성하기 까지 이토록 오래 걸릴지, 집필과 원고 수정 과정이 이렇게 힘든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완성하면 후련함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어서 책이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 이윤미 |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저자 각자의 오랜 경험과 노력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무척 기쁩니다. 이 책이 교육연극 수업에 관심 있는 예술 교육가와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저희 책을 보시고 교육연극 수업을 실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해 봅니다.

| 이광용 | 연극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연극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해외 사례 번역

서나 실천 에세이 등과 같은 이론서가 대부분이고, 교육연극 수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 책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이 책이 나오면 교육연극 수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극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기술했기 때문에 교육연극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이현경 | 2022년 6월에 선생님들과 처음 만나서 벌써 1년 반이 되어 가는데요. 그 시간이 정말 꿈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재미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이 모여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느새 책을 완성하는 단계에 오니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분의 생생한 수업이 담긴 교육연극 책이 궁금해집니다. 선생님에게 교육연극이란 무엇인가요?

| 유지훈 | 교육연극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연극이 결국 연극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하잖아요. 연극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종합예술이거든요. 우리는 연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회의 가치나 문화를 돌아볼 수도 있죠. 교육연극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나 문화를 깊게 조망할 수 있어요. 이런 배움은 한 사람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이윤미 | 제가 생각하는 교육연극은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육연극 수업을 하며 평소에 갖고 있던, 혹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는 답하기 어려웠던 물음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 가며 답을 찾는다면 진정한 배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연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진 ‘물음표’를 ‘아하!’라는 깨달음으로 변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 이광용 | 저에게 있어 교육연극은 ‘현시점에 제가 찾은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돋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수업에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익 추구’에 대해 알려 주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모두 공익을 추구하자.”라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공익 추구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로 전할 때보다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습이 실생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익 추구’를 주제로 교육연극을 한다고 해 봅시다. 직접 몸을 움직이고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공익 추구라는 주제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말로만 자료로만 배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연극이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 생각해요.

| 이현경 | 해가 지날 때마다 교육연극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기회로 시니어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교육연극의 이미지가 또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연극이란 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어디든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물처럼 교육연극도 넓고 자유롭게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연극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유지훈 | 저는 이광용 선생님과 함께 ‘연극하는 선생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생각이에요. 또 저는 인천교육연극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교육연극, 어린이 연극에 관심 있는 인천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자료도 만들고 인천어린이연극잔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해로 교사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발령이 났을 때 10년 후의 제가 교육연극에 이렇게 진심일지 상상도 못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교육연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교육과정에 교육연극을 접목한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 나름의 방식과 경로로 열심히 알리면서 교육연극 책을 집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 이윤미 | 저는 국어 과목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팀티칭하는 교과 연계 수업 프로젝트와 교사와 예술가가 협업하여 예술 수업을 진행하는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극 분야 예술 교육가와 예비 문화 예술 교육사를 위한 연수 및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극단 ‘우루루쾅쾅’의 배우로서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해 나가려 합니다. 또 이번 이야기 극화 책을 시작으로 교사와 협력하여 ‘연극 놀이, 과정 드라마, 교실 연극 만들기’ 등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극 장르별 실천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이광용 | 저의 닉네임을 내건 ‘미띤용의 연극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20여 명을 모아 과정 중심 공연 만들기를 진행하는데요, 매년 모인 학생들의 소질과 요구에 따라 운영하면서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무대 공연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 활동만큼은 저의 체력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연극 연구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연극·뮤지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고,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연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극과 뮤지컬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어요.

| 이현경 | 저는 극단 ‘무브먼트당당’에서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그룹 ‘작당 모의’에서 영상과 짧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프로젝트 그룹 ‘아이들의 섬’을 통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및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연극과 연극 예술을 다양한 형태와 대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아동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서로 만나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나 미술,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한 통합 수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이자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면서 교육과 연극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생님 네 분이 함께 집필한 교육연극 도서는 2024년 1월에 출간 예정입니다. N

*선생님들의 다양한 연극놀이와 교육연극 수업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극하는 선생님

youtube.com/c/연극하는선생님



01

공감을 이끌어 내는 교육연극

김미주

서울휘경초등학교 교사이다. 그림책을 읽거나 동화책을 읽으며 재미 있는 상상을 하는 것이 취미이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몸을 이용해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연극 수업을 즐겨 한다. 현재 좋아 서하는 그림책연구회, 서울초등교육연극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그림책과 교육연극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다. 나와 만나는 아이들이 따뜻한 교실 속에서 배워 나가고, 교실 밖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타인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책상 사이에 가림막을 두고 거리를 두며 생활한 3년 동안 학교에서는 모둠 활동은 물론이고, 짹 활동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거리를 두어 안전한 1m 공간을 만들고 가림막을 세워 지내는 동안 아이들은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 그 공간에는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었으며, 1m 이내의 세상만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였다.

코로나19 이후로 일상을 회복되었지만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증가했다. 특히 신체 폭력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는데,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 능력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꼽는다. 정서적 공감 능력은 개인 활동보다 집단 활동을 할 때 길러질 수 있다. 학교 폭력은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OX 퀴즈를 푼다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단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공감이 일어나도록 할 때 효과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1m의 세상을 넘어 아이들이 타인과 부대끼며 역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 방법을 교육연극에서 찾았다. 교육연극은 개인 활동이 아닌 집단 활동이다. 연극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협의한다.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이들은 신체를 접촉하기도 하며, 1m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연극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는데, ‘만약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 이 때 신체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진다.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 수업은 아이들에게 연극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제시한다. 현실이 아닌 가상은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 연극이 진행되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폭력의 상황을 경험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한다. 연극 장면을 함께 만들다가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교 폭력 예방 연극 수업은 실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기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연극 프로그램

교육연극은 크게 ‘드라마’와 ‘연극’으로 나뉘는데, 드라마는 교실에서 수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연극은 무대 중심의 공연을 말한다. 드라마는 학생들이 즉흥으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수업이 진행된다. 공연 목적이 아니므로 연기력은 필요하지 않다. 연극 속 역할이 되어 그 역할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교사의 연기력도 필요하지 않다. 교사 또한 평소 수업을 하는 모습으로 연극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된다.

교육연극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약속하기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극 수업을 부담스러워한다.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꼭 해야 할 일은 약속이다. 수업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약속한다.

① 신호 -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연극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기

드라마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연극 속 상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한다. 연극 속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역할이 되어 장면을 만들거나 즉흥극을 한다. 연극 밖에서는 실제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 연극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고, 교사는 진행될 연극의 상황을 제시하거나 역할을 설명한다.

활동 예시

연극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신호

- 가상의 연극 속으로 들어갈 때: “연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 연극 밖으로 나와 실제 수업으로 돌아올 때: “연극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② 믿어 주기 - 연극 속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역할을 믿어 주기, 교실이 다른 장소가 되는 것도 믿어 주기

드라마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다른 역할이 된다. 또한 교실도 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가 된다. 드라마 참여자가 연극의 특성을 알고, 연극의 상황을 믿을 때 연극에 몰입

할 수 있다. 드라마 수업 중 누군가가 믿어 주지 않고 비웃거나 땀지를 걸 때에는 지금은 연극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한다.

③ 살아 보기 - 연극 속에서 그 사람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기

드라마 수업에서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역할이 되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그 역할로 살아 보면 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드라마 프로그램 진행하기

[활동 1] 여름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 알기

역할	교사: 여름이네 반 선생님
	학생: 여름이네 반 학생
준비물	일기장, PPT(여름이의 일기)

교사: 우리는 이제 연극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은 여름이네 반 선생님 역할이고, 여러분은 여름이네 반 학생 역할입니다. 연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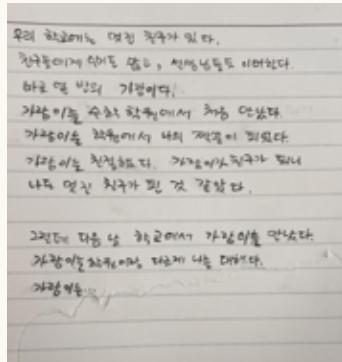
선생님: (교사가 교실로 등장한다.) 모두 다 왔나요? 출석부를 부를게요.(출석부를 펴고 이름을 부른다.) 어? 그런데 여름이가 보이지 않네요. 여름이 부모님과 통화해 볼게요. 잠시만요. (교사는 통화하는 척을 한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름이가 어떻게 지냈나요? 부모님과 통화해 보니 요즘 여름이가 잠을 통 못 자고,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해요. 여름이와 친했던 친구들 중 여름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에게 말해 줄 수 있나요?

학생: (학생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대답이 나온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요즘 잘 지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말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선생님: (일기장을 들어 보인다.) 사실 선생님이 어제 쓰레기통에서 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여름이의 일기장인 것 같아요. 여름이가 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기장을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여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일기장의 한 부분을 펴 보이며) 가람이와 여름이의 사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나요?

학생: (학생 사이에서 즉흥적인 대답이 나온다.) 가람이는 우리 학교에서 잘나가는 친구들과 무리로 다녀요. 가람이는 인기가 많은데, 친구들이 좀 무서워해요.



일기장 내용

우리 학교에는 멋진 친구가 있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선생님들도 예뻐한다. 바로 옆 반의 사람이다.

사람이는 수학 학원에서 나의 짹꿍이 되었다.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 나도 사람이처럼 멋진 친구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사람이를 만났다. 사람이는 학원에서와는 다르게 나를 대했다.

교사: 이제 연극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극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일기장은 앞으로 연극의 흐름을 이끄는 소재가 된다.

연극 밖으로 나와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연극 속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그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은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 2] 학원에서 있었던 일 동영상 장면 만들기

[활동 1]에서 함께 본 일을 바탕으로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장면을 만든다. 연극 속 인물인 사람이와 여름이가 동영상 장면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람이와 여름이의 성격이나 특징을 장면 속에 담아내 표현한다.

• 활동 핵심 질문

- 사람이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 여름이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 사람이와 여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활동 예시



학원에서 가람이는 여름이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친절하게 알려 준다. 학원 선생님은 가람이의 모습을 보고 칭찬한다.

[활동 3] 학교에서 있던 일 정지 장면 만들기

정지 장면(Still-Image): 타블로, 조각상 만들기. 핵심적인 의미를 정지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아이들에게 입체 사진이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지 장면으로 표현할 때는 인물, 물건과 같은 구체적인 것 외에도 인물의 감정, 날씨 등 추상적인 개념도 표현할 수 있다.

• 정지 장면 만드는 방법

- ① 학교에서 여름이와 가람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지 장면으로 표현한다.
- ② 선생님이 한 명씩 어깨를 터치하면 핵심 대사를 한마디 한다.

연극 속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아이들이 만들어 낸 장면이 학교 폭력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 사건을 연극 속에 표현한다.

• 활동 핵심 질문

- 학교에서 여름이와 가람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가람이는 왜 학원에서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 가람이는 여름이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 가람이의 행동을 보고 여름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01

활동 예시

가람: (다른 친구 귀에 속삭이며) 여름이 쟤 완전 멍청해.

가람 친구 1: (여름이를 손가락질하며 웃으며) 크크크!

가람 친구 2: (비웃는 표정으로) 쟤는 자신이 멍청한 것도 모른대?

여름: (웅크려 앉아서) 왜 그러지? 내 웃이 좀 이상한가?

[활동 4] 여름이의 악몽 만들기**준비물**

PPT(여름이의 일기)

일기장 내용

나는 꿈을 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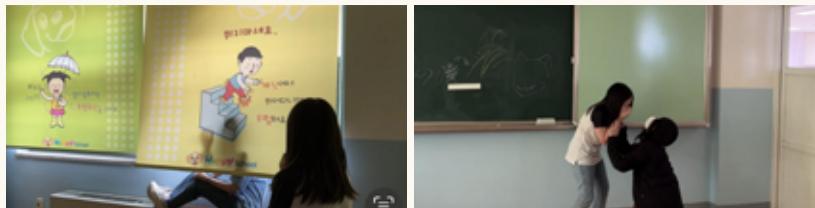
아주 기분 나쁜 덩어리가 나오는 꿈이다.

나는 이 덩어리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는 것도 무섭다.

교사: 여름이의 꿈에 등장한 덩어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이의 꿈에 나타난 악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연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역할	교사: 여름이 학생: 여름이의 악몽에 등장하는 무언가(덩어리)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들은 악몽에 등장하는 무언가가 된다. ② 학생들은 교실 한 곳에 정지한 채로 위치한다. ③ 교사가 여름이가 되어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④ 학생들은 즉흥으로 동작을 하고, 소리를 내며 악몽을 표현한다. <p>*약속: 이때, 여름이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p>

활동 예시



학생 1: (손가락질하며) 바보, 멍청이.

학생 2: (두 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며) 저리 가.

여름: (웅크린 채로)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여름이의 악동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조금 더 심해진 학교 폭력 가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본다. 학교 폭력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며, 연극일지라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직접적으로 폭력의 모습을 표현하는 대신, 환상적인 악동을 이용한다. 악동이 주는 기괴함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연극의 상징은 더욱 살아난다.

교실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극 수업을 할 때,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들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 교사가 직접 피해자가 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꼭 아이들이 연극에서 직접 피해자가 되어 보지 않아도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악동을 표현한 후,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보며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 5] 여름이의 마음 표현하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여름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여름이의 입장이 되어 표현하는 활동이다. 색종이를 접거나 잘라서 여름이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때, 여름이의 마음을 즉흥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접거나 잘라서 표현한다. 이때 검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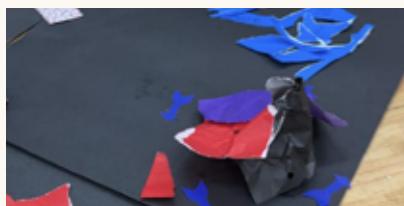
01

위에 여름이의 마음을 배치한다. 그후 여름이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한 명씩 설명한다.

• 활동 핵심 질문

- 마음의 어떤 위치에 배치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색으로 마음을 표현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형태로 마음을 표현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활동 예시



여름이의 아픈 마음을 뾰족하게 표현했어요. 화살표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구멍은 기쁨이 새어 나가는 곳이에요.



여름이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해요. 속으로만 외치는 ‘그만해’ 소리는 여름이를 더욱 힘들게 해요.

갈기갈기 찢겨 버린 여름이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찢어진 마음은 다시 붙이기 어려워요.

[활동 6] 또 다른 피해자, 연우를 목격하기

지금까지 아이들은 주로 여름이의 입장이 되어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보았다. 다음 활동에서는 목격자가 되어 본다.

목격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까? 직접 표현해 본다.

준비물

PPT(여름이의 일기)

일기장 내용

쉬는 시간, 나는 운동장에 있었다.

가람이가 연우에게 소리쳤다. “저리 비켜, 연우 멍청아!”

교사: 여름이는 가람이에게 괴롭힘 당하는 연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이었다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름이가 되어 가해 장면을 목격한 순간을 정지 장면으로 표현합니다. 연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역할	학생: 여름이
준비물	의자 2개(가람이, 연우)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실 가운데에 의자 2개를 둔다. 의자에는 각각 가람, 연우라고 쓰인 이름표를 부착한다. ② 학생들은 여름이가 되어 가람이와 연우를 본 반응을 정지 장면으로 표현한다. ③ 선생님이 한 명씩 어깨를 터치하면 핵심 대사 한마디를 한다. (여름이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도 된다.)

• 활동 핵심 질문

-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연우와 가람이를 목격했나요?
- 여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직접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활동 예시



학생 1: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가 괴롭히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습을 취한다.)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해야지.

학생 2: (기둥 뒤에서 힐끗 보는 시늉을 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학생 3: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지.

학생 4: (의자에서 가까이 서서 손가락질을 한다.) 야, 사람이 너 뭐하는 거야?

학생 5: (두 손을 모아 비는 시늉을 한다.) 제발 그만둬. 왜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활동 7]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표현하기

역할

교사: 여름이네 반 선생님

학생: 여름이네 반 학생

교사: 우리는 이제 다시 연극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네 반 선생님과 학생이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이고, 여러분은 학생 역할입니다. 연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우리는 여름이, 사람이, 연우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학생: (학생들 사이에서 즉흥적인 대답이 나온다.) 117에 신고해요. 선생님은 여름이와 상담을 해요. 우리는 여름이에게 관심을 갖고 대해 줘요.

선생님: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는 걸로 합시다.

교사: 이제 연극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모둠별로 정지 장면을 만들어 표현해 봅시다.

활동 예시

모둠 1: 117로 학교 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정지 장면

학생 1: (전화하는 시늉을 한다.) 우리반 친구를 도와주세요.

학생 2: (전화 받는 시늉을 한다.) 무슨 일인가요?

학생 3: (두 손을 비빈다.) 미안해, 여름아, 연우야.

학생 4: (팔짱을 끼다.)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모둠 2: 반 친구들이 여름이, 연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정지 장면

학생 1: (학생 2에게 팔짱을 끼다.) 여름아, 같이 놀자.

학생 2: (학생 1을 바라본다.) 우리 연우랑도 같이 놀자.

학생 3: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한다.) 연우야, 이리 와. 같이 놀자.

학생 4: (학생 3을 바라본다.) 얘들아, 고마워.

[활동 8] 드라마 활동 소감 나누기

활동 소감

-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쁘고 심한 괴로움을 주는지 느끼게 되었다.
- 앞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 학교 폭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신고해야겠다.
-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연극 수업을 하며 가상의 세계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학교 폭력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은 피해자의 역할이 되어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목격자의 역할이 되어 친구를 위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연극 수업에서 교사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을 알려 주지 않았다. 단지 드라마의 상황만 제시했다. 아이들은 학교 폭력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기, 피해자의 친구가 되어 주기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냈다. 아이들은 학교 폭력 예방 연극이 지금까지의 수업 중 가장 긴장감이 있었고, 몰입되었다고 얘기했다.

교사가 알려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연극 수업을 통해 배운다. 연극을 하며 타인의 마음을 살피고,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다. 학교 폭력 예방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교육연극 수업으로 아이들을 학교 폭력의 상황 속으로 안내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연극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갈 것이며, 그렇게 배워 나갈 것이다. **N**

02 말랑말랑 교육연극 수업 이야기

김현아

교실 안 베짱이가 되고 싶은 대전 대양초등학교 교사. 누군가에게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베짱이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개미에게 베짱이는 음악이라는, 예술이라는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빛깔을 찾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반짝이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과 기타 치며 노래하고, 몸을 움직이고 연극을 한다. 예술이 주는 긍정적 기운과 여유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01. 연극 수업, 대체 뭘까?

동료 교사와 이야기하다 보면, ‘연극’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무대, 조명, 소품, 대사와 연기 등 모든 것이 최대한 실수 없이 완벽에 가까워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은 교사가 쉽게 연극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선 교육연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놀이 (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적인 요소를 가진 놀이 · 예) 백제, 고구려, 신라의 병사가 되어 하는 가위바위보
드라마 (DR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중심의 연극 · 목적: 연극적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무언가 느끼고 배우는 것
무대 공연 (THEAT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중심의 무대 공연 · 목적: 관객에게 보여 주는 것

출처:『깃털쌤의 이야기가 있는 교육연극 수업』, 박병주(깃털쌤)

연극 수업에 대한 부담감에 휩싸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경험한 연극이 최종 공연 형태인 ‘THEATRE’이고, ‘연극 수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은 형태의 연극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극 수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만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몸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표현해 보는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경험이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연극 수업의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연극 수업의 개념을 확장하여 처음에는 연극 놀이의 형태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교사의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교육연극으로의 한 발을 떼기가 가능할 것이다.

02. 극적으로 놀자, PLAY!

국어 교과의 연극 단원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연극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연극과 같은 표현 활동이 처음이어서 어색해하는 학생들과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

[GO, STOP!(고, 스톱!)]

연극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멈춤’과 ‘움직임’이다. 학생들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멈추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하는 놀이이다.

활동 방법

- ① 교사가 ‘GO’하면 움직이고, ‘STOP’을 외치면 멈춘다는 약속을 설명한다.
 -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첫 시간에 교사는 ‘STOP’을 외치면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눈도 깜빡이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 있는 것이 의심될 만큼 실감 나는 시범을 보여 준다.
 - 학생이 활동에 대해 익숙해지면 ‘JUMP!’를 추가한다. ‘JUMP’를 외치면 제자리에서 점프한다.
- ② 학생은 모두 일어서서 천천히 걷는다.
 - 이때, 줄을 서서 걷지 않아도 되므로 앞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 느낌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처음에는 교사가 ‘GO-STOP’을 주도하다가, 학생이 외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 준다.
- ③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에 맞는 움직임으로 움직인다.
 - 예 “내가 모델이 되었다! GO!”: 모델의 걸음걸이, 표정, 눈빛 등으로 움직인다.
 -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 GO!”: 다급하다는 몸짓으로 급하게 움직인다.
- ④ ‘STOP’이 들리면 멈춘다. 이때, 교사가 터치한 학생은 2초의 움직임과 대사를 할 수 있다.
 - 예) 모델인 경우, (당당히 모델 워킹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 사슴인 경우, (숨을 헐떡이면서) “나는 살고 싶어.”

[상황 예시] 모델처럼 걸음걸이 바꾸기, 관절 아픈 노인 되어 보기, 지각할 것 같은 상황, 똥이 마려운 상황, 등산하는 상황 등

[~이 됩니다, ~이 됩니다!]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변형한 연극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활동에서 경험했던 ‘멈춤’과 ‘움직임’,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놀이이다.

활동 방법

- ① 전체적인 놀이 형태는 전통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다. 한쪽 벽에 술래 한 명이 서고 나머지 학생은 반대편 출발선에 선다.
 - ② 술래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가 됩니다."
 -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직업, 동물, 운동 등이 괄호 안에 올 수 있다.
 - ③ 다른 학생은 술래가 돌아볼 때 호랑이처럼 멈추어 선다.
 - ④ 술래가 보기에 움직였거나 호랑이가 아닌 것 같으면 잡아낸다. 잡힌 사람은 술래와 손을 잡고 대기하며 다른 학생의 움직임을 함께 본다.
 - ⑤ 활동을 하면서 '갑니다'에 익숙해지면 '딥니다', '합니다' 등으로 변형할 수 있다.
- 예** 학교에 갑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호랑이가 됩니다, 개구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됩니다.
 샤워를 합니다, 야구를 합니다, 수영을 합니다, 발레를 합니다.

[활동 TIP] 술래를 위해 술래 옆에 예시를 붙여 놓고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해도 좋다.



연극 놀이 '개구리가 됩니다' 활동 모습

03. 연극으로 함께하자, 드라마(DRAMA)

이제 학생들 사이에 역할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약속이 생긴다. 서로가 약속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연극을 경험하는 활동이다.

[찰흙과 조각가]

활동 방법

- ① 두 명이 짹이 되어 한 사람은 찰흙, 한 사람은 조각가의 역할을 맡는다.
- ② 조각가는 먼저 마사지로 찰흙을 풀어 준다.
- 어깨 살짝 주무르기, 어깨 꽈약 주무르기,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주무르며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하기, 이마 잡고 뒷목 풀어 주기, 손 마사지하기(전기 놀이) 등. “내가 열심히 풀어 줬으니 잘 표현해 줄 거지?”하고 찰흙에게 말한다.
- ③ 조각가는 말하지 않고 찰흙(짬뽕)을 움직여 주제에 맞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자세, 손, 얼굴 각도, 표정까지 세심하게 표현한다.
- ④ 조각이 완성되면 조각가는 조각 옆에 서서 조각의 이름과 작품에 대하여 설명한다.
- ⑤ “땡~” 하고 조각을 터치하면 조각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초 동안 움직이며 말을 할 수 있다.

[주제 예시] 과거 가장 행복했던 시간, 10년 뒤 미래 나의 모습, 지금 나의 기분



‘찰흙과 조각가’ 활동 모습

[정지 장면 만들기] 사진이 움직인다, LIVE PHOTO

장면 만들기는 교육연극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다. 처음 시도할 때는 사진이나 그림을 그대로 묘사하여 표현하고, 활동을 지속해 가며 점점 표현의 자유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소개한다.

활동 방법

- ① 4~6명의 모둠을 구성한다.
- ② 모둠별로 랜덤으로 선택한 예시 그림을 정지 장면으로 표현한다.
예) 운동회, 전쟁터, 미용실, 헬스클럽 등
- ③ “땡~” 하고 장면을 터치하면 상황에 맞게 2초 동안 살아나 움직임과 대사를 한다.

[활동 TIP] 모둠원들은 사람이 될 수도, 의자와 같은 사물, 혹은 자연물이 될 수도 있다.



정지 장면 만들기 활동 모습

04. 연극으로 수업을!

[수업 예시 1] 시와 연극으로 놀기

소개할 수업은 1~2차시로, 학생들이 비유적 표현을 처음 접하는 시간이다. 비유적 표현이 들어 있는 시를 소리 내어 읽고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면서 문학에 흥미를 갖게 하고자 수업을 구성했다.

단원	6학년 1학기 국어 1. 비유하는 표현	
성취 기준	1. 문학 [6국05-03]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려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 문학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수업 재구성	1~2차시	시, 비유하는 표현과 친해지기(시로 만드는 조각 공원)
	3차시	노래 가사로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4차시	비유하는 표현 떠올리기
	5~6차시	시 쓰고 시화 꾸미기
	7~8차시	시화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상욱 시인의 시로 마음 열기 - 빗대어 표현하는 재미를 느껴 본다. 						
[활동 1] 다양한 목소리로 시 읽기	<p>① 학생들에게 비유하는 표현이 담긴 시를 하나씩 무작위로 나누어 준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호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정지용</p> <p>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p> <p>보고픈 마음 <u>호수만 하니</u> 눈 감을 밖에</p>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width: 50%;"> <p style="text-align: center;">풀잎과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정완영</p> <p>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겼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p> <p>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쳤다가 되찾아 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p> </td></tr> <tr> <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너에게 묻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도현</p> <p>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u>너는</u> <u>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u></p> </td><td style="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풀꽃</p> <p style="text-align: center;">나태주</p> <p>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u>너도 그렇다</u></p> </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호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정지용</p> <p>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p> <p>보고픈 마음 <u>호수만 하니</u> 눈 감을 밖에</p>	<p style="text-align: center;">풀잎과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정완영</p> <p>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겼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p> <p>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쳤다가 되찾아 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p>	<p style="text-align: center;">너에게 묻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도현</p> <p>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u>너는</u> <u>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u></p>	<p style="text-align: center;">풀꽃</p> <p style="text-align: center;">나태주</p> <p>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u>너도 그렇다</u></p>
<p style="text-align: center;">호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정지용</p> <p>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p> <p>보고픈 마음 <u>호수만 하니</u> 눈 감을 밖에</p>	<p style="text-align: center;">풀잎과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정완영</p> <p>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겼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p> <p>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쳤다가 되찾아 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p>						
<p style="text-align: center;">너에게 묻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도현</p> <p>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u>너는</u> <u>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u></p>	<p style="text-align: center;">풀꽃</p> <p style="text-align: center;">나태주</p> <p>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u>너도 그렇다</u></p>						
전개	<p>②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자신에게 온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본다.</p> <p>③ 계속해서 천천히 걸으며, 목소리를 바꿔 가며 시를 읽는다. (예) 내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아기 목소리, 아빠 목소리, 로봇 목소리 등 (지루하지 않게 여러 번 읽으면서 시의 내용에 점점 익숙해지도록 한다.)</p>						

[활동 2] 조각 공원 관람하기

① 시에는 비유하는 표현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 조각 공원의 규칙을 설명한다.

“시에는 비유하는 문구에 밑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정지 장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각 공원의 조각들이 되는 거지요! 반으로 나누어, 먼저 첫 번째 팀이 조각이 되고 다른 팀은 조각 공원의 관람객이 될 것입니다.”

② 조각 작품 역할을 하게 된 학생들은 자신이 표현할 비유하는 표현에 맞는 위치에 가서 움직임을 떠올리고 조각의 형태로 멈춰 있는다.

	<p>③ 관람객 역할의 학생들은 조각 공원을 거닐며 조각들을 감상한다. 이때, 관람객이 조각을 터치하면 비유하는 표현을 말하며 움직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와 같은 시의 문구를 말한다.</p> <p>④ 관람이 끝나면 조각 작품과 관람객의 역할을 바꾸어 진행한다.</p> <p>⑤ 활동이 끝나면 기억에 남는 표현을 나눈다.</p>
전개	
	조각 공원 관람하기 활동 모습

수업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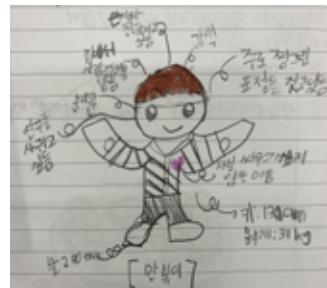
- 시가 재미있다.
- 놀이 같은 수업! 비유하는 표현을 알게 됐다.
- 어려울 것 같았는데 비유하는 표현이 재미있다는 걸 알았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무슨 활동을 하게 될지 국어 시간이 기대된다.

[수업 예시 2] 『만복이네 떡집』 낭독극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복이네 떡집』을 극화하여 낭독극을 준비하여 공연했다.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며 장면을 구성하고 이를 다듬어 공연을 준비했다.

도입	[활동 목표] 함께 책을 읽으며 장면 구성하기
STEP 1	<p>(1) 캐릭터 연구하기: 만복이가 누구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on the wall(인물 만들기)

02

STEP
1

• 핫 시팅



낭독극을 하기 전 캐릭터의 성격을 알아봐야 한다. 인물 만복이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한다. 사람 모양을 그리고 바깥쪽에는 만복이의 외적 요소(생김새, 가정환경, 습관, 흡터 등)를, 안쪽에는 만복이의 내적 요소(성별, 나이, 성격, 마음 상태 등)를 써 보며 캐릭터를 연구한다.

학생 한 명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의자에 앉는다. 다른 학생들은 인물에게 질문을 하고, 의자에 앉은 학생은 인물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2) 장면 만들기 1

앞서 설명했던 정지 장면을 만들며 이야기를 표현해 본다.

- 만복이는 왜 성격이 나빠졌을까?
- 이야기에 없는 이미 지나간 일을 상상하여 표현해 본다.
-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갈등에 빠지는 만복이
- 만복이가 겪었을 상황을 표현해 본다.

(3) 이야기꾼 만복이 되어 보기

만복이는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이야기꾼이 되어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다. 학급 전체 학생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모두 만복이가 되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줄게. 옛날 옛날에~”

학생들은 인기 있는 이야기꾼이 되어 만복이의 기분을 느껴 본다.

(4) 장면 만들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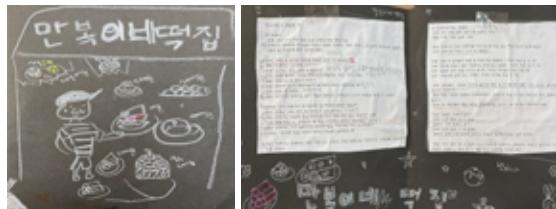
변화한 만복이 되어 보기: 만복이는 쑥떡을 먹고 속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동물, 사물 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만복이의 이야기를 모둠 별로 꾸며 본다.

**STEP
2**

[활동 목표] 낭독극 준비, 연습 및 공연하기

(5) 대본 구성하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낭독극에 맞게 대본을 구성한다. 이때, 학생들과 만들었던 장면을 추가하면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아진다.



(6) 오디션 및 캐스팅하기

구성된 대본의 인물에 맞추어 학생들이 원하는 인물에 지원하도록 한다. 경쟁률이 높은 인물이거나 대사의 비중이 많은 인물은 두 명의 학생으로 더블 캐스팅하는 것도 좋다.

(7) 소품 준비하기

다른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소품을 준비한다. 미술과 연계하여 만복이네 떡집 간판, 만복이가 먹게 되는 떡을 그림으로 그려 소품으로 준비한다.



(8) 연습하기



학생들이 연습할 때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낭독극이기에 대사에 적합한 간단한 동작을 추가해도 좋다.

**STEP
2**

(9) 공연 리허설하기

등장과 퇴장하는 순서와 동선을 확인한다. 각 장마다 무대에 필요한 의자 개수 가 다르고 소품이 있으므로 장이 바뀔 때 의자와 소품을 치우고 다시 준비해 줄 학생에게 역할을 준다.

공연 최종 리허설은 중간에 실수해도 끊지 않고 2회 정도 반복한다. 본 무대에 서 실수하더라도 당황한 마음에 얼어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사를 이어 나 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10) 본 공연하기

다른 반 학생들을 관객으로 초대하고 본 공연을 한다.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하여 학부모와 공유한다. 관객들의 후기를 전해 주면 학생들의 뿌듯함과 성취감이 더 상승한다.



수업 후기

-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장군이네 떡집으로 2탄 공연도 하고 싶어요.
- 제가 나올 때 친구들이 웃어 줘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
- 책 읽는 것부터 공연하는 것까지 다 재미있었어요. 무대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떨렸는데 시작하니까 괜찮았어요. 뿌듯해요.

지금까지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교육연극 활동을 살펴보았다. 연극을 통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감각을 깨우다 보면, 학생들의 굳어 있던 몸이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물면서 배움 사이로 감정이 오고 감을 느낄 수 있다. 표현하고, 움직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몸도 마음도 말랑해지는 신기한 느낌을 연극 수업을 통해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 N

* 김현아 선생님의 연구 활동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아선생님과 따뜻한, 누리봄
blog.naver.com/kimhyunah92



03 무작정 시작했던 첫 연극 수업

송칠섭

서울신내초등학교 교사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극 수업을 재구성한『연극, 수업을 바꾸다』와 온작품 수업을 재구성한『행복한 책읽기 수업』을 집필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미래를 들여다본『코로나 이후 학교의 미래』를 공저했다. 틀에 박힌 교과서 중심의 수업 대신 학생들의 성장과 성숙을 돋는 의미 있는 수업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 교사들의 행위 주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교육실천이음연구소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다.



2000년 9월에 첫 발령을 받았다. 학기 중간에 담임을 맡은 터라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나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그해 학교 교육과정에 학예회가 있어서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영역이어서인지 학예회가 끝나고 반응이 좋았다. 으쓱해진 마음에 2년 뒤에도 다시 연극을 시도했다. 조심스럽게 시도했던 첫해와는 달리 선무당이 사람 잡듯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는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 아랫배에 힘주고 다시 해 봐”,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야? 상대를 봐야지 바닥을 보면 어떻게 해!”, “스태프는 동선이 겹치지 않게 확인하며 움직여야지”, “무대를 준비할 때, 한쪽에서 우르르 나오지 말고 조용하고 신속히 나와야 해”, “음향 정신 안 차려? 조명이 깨지기 전에 시작했다가, 다시 조명이 켜지면 음향을 꺼야 해.”

요즘 같으면 민원을 수차례 받았을 일들이었다. 어찌어찌 공연은 올렸으나, 학예회가 끝난 뒤 교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이후 나는 ‘연극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다시는 연극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수업의 목록에서 연극을 지웠다. 연극을 제외한 다양한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던 차에 혁신 학교가 생겼다. ‘교육 혁신’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내가 가르치고 싶은 수업’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에 강동구에서 개교하는 강명초에 지원을 했다. 강명초에서 이런저런 수업 재구성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재구성한 수업에 연극은 없었다.

다시 시작한 연극 수업

‘연극 수업’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함께 발령을 받은 선생님 한 분이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연극 수업은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 교사의 주도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반면 강명초에서는 ‘연극’이 아닌 ‘수업’에 초점을 맞춰 연극 수업을 했다. 그 후로 고학년 담임을 할 때마다 꾸준히 연극 수업을 진행했다. 교사 혼자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안내를 하고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노하우가 쌓였다.

연극 수업의 진행 과정 소개

2015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교과서에 연극 단원이 생겼다. 과거에 극본과 관련된 단원이 있기는 했지만, 연극이 한 단원으로 구성된 경우는 처음이라 많은 선생님이 연극 수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연극이 들어왔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극 수업을 망설이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1. 연극 놀이로 연극 수업 시작하기

놀이를 중심으로 한 연극 수업은 표현 능력 향상이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할 때 좋다. 다양한 놀이를 연극 수업에 어울리도록 재구성하면 된다. 5차시 혹은 10차시로 구성할 때 계열성을 가지고 연극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연극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놀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놀이를 추천하기는 어렵다. 감각을 깨우는 놀이, 표현 위주의 놀이, 신뢰 쌓기 놀이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놀이 수업을 구성하되 놀이를 연극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재구성한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하기, 감각 깨우기, 표현 활동하기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자기소개하기 놀이 [나로 말하자면]

자신을 소개하는 놀이이다. 의자를 원의 대형으로 놓아 둘러앉는다. 토킹 피스를 가진 사람이 ‘나로 말하자면’이라는 말로 자기소개를 시작한다. 토킹 피스를 가지고 자기 소개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친구에게 토킹 피스를 건네 주며 “너는 어때?”라고 한다. 토킹 피스를 건네받으면 “나로 말하자면”으로 시작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문장을 말한다. 패스의 기회 “너는 어때?”는 한 번만 주어지고 다시 토킹 피스가 돌아오면 자기소개를 한다. 자기소개의 주제는 교사가 정해 주고, 다음에는 학생들의 비슷한 대답이 여러 번 반복될 때쯤 새로운 주제를 말하도록 한다. (주제: 잘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등)

예) 잘하는 것 말하기

“나로 말하자면 탁구를 잘 치는 편이야. 너는 어때?” (토킹 피스를 친구에게 건넨다.) “나로 말하자면 게임을 잘하는 편이야. 너는 어때?” (토킹 피스를 친구에게 건넨다.) “나는 아직 잘하는 것을 못 찾았어. 너는 어때?”

감각 깨우기 놀이 [내 의자에 앉기]

8~10명씩 그룹을 만든다. 만들어진 그룹을 다시 두 개의 조로 나눈다. 각 조별로 두 사람씩 짹을 이루고 한 사람은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은 의자 뒤에 선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일어서서 10보 정도 걸어간다. 10보를 걸어간 후 뒤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의자에 앉는다. 주의할 점은 의자에서 일어서서 다시 앉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의자 뒤에서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의자에 앉아야 한다. 뒤에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앞으로”, “멈춰”, “뒤돌아”, “앉아”만 말할 수 있다. 이 놀이는 내 짹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며 감각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표현 활동하기 놀이 [물건 전달하기]

모둠별로 하는 마임 활동이다. 먼저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로 한 가지 물건을 정한다. 그 물건의 용도를 모둠원이 돌아가며 발표한다. 먼저 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구들 앞에서 보여 준 다음, 다음 모둠원에게 물건을 넘겨준다. 물건을 넘겨받은 모둠원은 아까 친구가 표현하지 않은 물건의 용도를 표현하고, 다음 모둠원에게 넘겨준다. 마지막 모둠원이 물건의 용도를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맞힌다. 주의할 점은 물건의 용도를 표현할 때 동작을 크게 과장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어도 네 개 이상의 용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 물건 전달하기(천: 사각형 - 보자기 - 스카프 - 깃발)

“우리 모둠은 천을 가지고 표현해 보면 어때? 내가 먼저 천 모양으로 사각형을 표현해 볼게.” → “그럼 나는 천을 받아서 보자기에 물건을 쌀 거야.” → “나는 그 보자기를 받아서 잘 접은 다음 스카프로 목에 두르면 되겠다.” → “나는 그것을 깃발로 만들어서 흔들면 되겠다.”

2.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연극 수업 하기(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자율 교육과정을 활용하려면 수업 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차시별 수업 및 주요 내용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40차시를 블록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활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더 자유롭고 다양한 재구성이 가능하다.

차시 (블록)	학습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	연극 수업 시작	연극 수업의 안내 및 연극의 개념 알기	- 연극의 요소 알기(배우, 무대, 관객, 희곡 등) - 희곡의 요소 알기(해설, 지문, 대사 등)
2		연극 공연 영상 살펴보기	- 영상 보며 이야기하기
3		극본 쓰기 및 고쳐 쓰기	- 내용을 해설, 지문, 대사로 구분하기 - 극본 쓰기 완성 및 극본 선정
4	연극 구성에 대한 수업	인물의 성격 파악	<1차 대본 읽기> - 이야기 속 주요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5		갈등과 원인 찾기	<2차 대본 읽기> - 인물 사이의 갈등 상황 및 원인 찾기
6		내용 및 사건 파악	<3차 대본 읽기> - 극본의 전체 내용 정리하기 - 사건의 발단에서 종결까지의 과정 알기
7		배역 및 역할 분담	- 인물의 성격에 맞는 배역 정하기 - 배경, 효과, 조명 등 담당자 정하고 역할 분담하기
8	연극 연습	연극 놀이 및 표현 활동	- 연극 놀이를 통한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 대본 연습하기
9		연극 놀이 및 표현 활동	- 인물의 성격에 맞는 표현 탐색하기 - 대본 연습하기
10		연극 놀이 및 표현 활동	-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 이해하고 지문 보충하기
11		중간 점검	- 연습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정리하기 - 소감, 설문조사 및 이야기 나누기 -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찾아보기

12	연극 연습	연극 놀이 및 표현 활동	- 극중 장면에 어울리는 표현 탐색하기 - 대본 연습하기	
13		스태프와 함께 연습 ①	- 음향 및 조명에 맞춰 연습하기 - 소품 담당의 동선과 순서 확인하기	
14		스태프와 함께 연습 ②	- 음향 및 조명에 맞춰 연습하기 - 소품 담당의 동선과 순서 확인하기	
15		종간 점검	<연극 공연 관람(체험 활동)> - 공연 관람 전 인터뷰 질문 준비하기(배우, 스태프) - 관람 소감 글쓰기(인터뷰 내용 포함해서)	공연 관람이 어려울 경우 연극 공연 영상 시청으로 대체
16	연극 공연	연극 공연 준비	- 연극 포스터 만들기 - 연극 배경 만들기	미술2와 연계(포스터 만들기)
17		최종 무대 리허설	- 무대의 특징에 알맞은 행동 익히기 - 감정을 이입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기 - 서로 평가해 주고 고쳐 주기	
18		연극 공연	- 무대 위에서 실감 나게 표현하기 -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무대 완성하기	진로2와 연계(진로 탐색하기)
19		연극 관람	- 다른 반 친구들의 무대 관람하기 - 서로의 무대 평가해 보기	
20	연극 수업 마무리	정리 활동 (설문조사, 글쓰기)	- 공연 후 정리하기 - 관람 설문 결과지 읽기 - 소감 말하기 및 글쓰기	일기, 신문 기사 작성 등 활동

[1~3차시] 연극 수업 시작

연극 수업을 시작할 때는 교사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면 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혹시 연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니?”, “배우는 어떤 일을 할까?”, “그럼 관객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대는 무엇이라 생각하니?”와 같이 질문을 하거나, 영상을 보여 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칠판에 ‘연극의 3요소는 배우, 관객, 무대’라고 판서를 하고 학생들에게 무작정 외우도록 하기보다 대화를 하면서 혹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연극의 3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었다. 연극의 3요소와 같이 수업과 관련된 개념 요소는 연극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1차시 말미에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극본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과제로 내준다. 만들어 온 극본으로 연극을 해 보자는 의견이 수렴되면 연극 수업의 1차시는 마무리된다. 1차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극본을 써 오는 기간 동안 교사는 연극 연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4~7차시] 연극 구성에 대한 수업

03 연극 수업이 수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지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연극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나 극본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까닭은 연극 수업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판서를 통해 암기하기보다 몸으로 표현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극과 관련된 지식 축적으로 이어지길 의도했다.

연극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 바로 극본을 준비해서 역할을 맡기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달려들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역할이 버거워지면 불협화음을 낸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한 역할 설정과 그 역할의 성격을 세우는 안내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돋는 설명을 하는 데 한 시간, 각 역할을 정하는 데 한 시간 정도 사용했다.

연극 수업에서 연극 공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대본을 쓰는 작가, 대본으로 공연을 만들어 가는 연출가, 연출가의 지휘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배우의 연기를 뒷받침하는 스태프가 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각자가 맡은 영역에 충실히 한다는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무대 공연을 준비하는 공동체 의식을 쌓기 위해서이다.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빠져 있으면 아이들은 이들 영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교사가 특히 주의해서 지도해야 할 영역이다.

작가

연극 수업을 진행할 때 극본을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연이라면 전문 작가가 필요하겠으나, 교실에서는 작가보다는 ‘작가의 활동’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극본을 준비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극본을 구해서 각색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학생들이 극본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극본을 쓰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에 연극 수업에 필요한 차시가 줄어든다는 장점과 학생들이 극본을 써 보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쓸 경우에는 연극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극본을 써 보는 경험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극본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첫 해를 제외하고는 늘 학생들에게 극본 쓰기를 맡겼다.

극본을 작성할 때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에게 대본 쓰기를 맡기는 방법과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소수의 학생에게 대본 쓰기를 맡기면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급 구성원 모두가 극본을 써 보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소수의 학생들만 극본에 관여하기에 다른 학생들은 극본 쓰기와 관련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연극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극본 쓰기에서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법은 과제를 제시하고 수합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대신 모두가 극본 쓰기부터 참여하기에 연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그 밖의 장점 중 하나는 극본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총 책임자를 세울 수도 있다. 완성도 높은 극본을 쓰는 학생의 경우 공연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배우를 지망하지 않을 경우 연출가를 권해도 좋다.

극본을 쓸 때 주의할 점 중 한 가지는, 대본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정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편이 좋다. 공연을 준비하는 중간에 뜻밖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극본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쉽다. 대신 극본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수정된 극본으로 연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리허설 단계에서는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연출가

연극 수업의 깊이는 연출가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극 수업에서는 교사가 연출가의 역할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연출가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만일 교사가 연출가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연극 수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학생이 연출가의 역할을 했을 때에 비해 크게 축소된다. 공연의 완성도 면이나 수업의 진행이 매끄럽기 위해서는 교사가 연출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품이 적게 들고 수월하다. 교사가 연출가를 하면 교사의 의도대로 연극 연습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학생이 연출가를 하는 것에 비해 교사의 에너지가 적게 듈다. 학생이 연출가 역할을 맡게 되면 교사는 연출가의 역할에 대한 지도까지 수업을 준비해야 하기에 교사가 연출가 역할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

러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은 교사가 연출가 역할을 했을 때 배움의 경험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처럼 연극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의 입장뿐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도 연출가를 누가 맡느냐는 연극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처음 연극 수업을 시작하고 그 경험이 연극 수업에 대한 회의로 가득했던 이유는 직접 연출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 나는 교사가 아닌 무대감독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연극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은 깊은 학생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교사가 연출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학생들을 다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회의감에 빠졌다. 그 후로 한동안 연극 수업을 하지 않았다. 연극 수업에서는 반드시 학생을 연출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배우

연극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고 하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언제 배우를 뽑아요?”라는 말과 함께 배우에 대한 관심을 크게 표현한다. 또, 연극 수업을 진행하면 초반에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배우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배우의 역할은 활동적이며 자기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로 맡는 편이다. 연극 수업을 진행하기 전 대충 그림을 그려 보면 누가 배우를 하고, 누가 스태프를 할지 알아차릴 때가 많다. 그러나 간혹 평소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나 그 내면에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는 학생들도 배우의 역할을 잘 수행하니 이런 지점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인 표현 욕구를 감추고 있던 학생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는 듯 보이나 친구들, 혹은 교사의 지지를 받는 순간 최선을 다해 내면의 끼를 표현한다. 평소와 다르게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학생들도 보았다.

배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에는 학급의 성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해 학생들의 성향이 자기 표현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경우라면 스태프의 역할에 대해 비중을 두고 안내하고, 그렇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을 보이면 배우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안내하면 적절하게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배우를 하려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선생님 대사를 모두 외워야 해요?”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학급에서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며 답을 한다. 배우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대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외워서 연기하는 것이라는 말로 가벼운 부담을 더할 수 있고, 배우를 하려는 학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요한 맥락과 관련해서는 외우되 중간중간 애드립을 허용한다는 말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스태프

학생들에게 연출가와 배우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스태프의 역할에 대해 안내한다. 연극 수업을 시작할 때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모든 학급 구성원이 연극에 참여한다.’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따라 나오는 질문이 “저는 배우 안 할래요. 다른 거 없어요?”, “배우 안 하는 사람

은 뭐해요?”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배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태프의 역할을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를 한다. 연극은 배우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가 잘 만들어 놓은 판에서 배우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스태프가 얼마나 좋은 판을 만드느냐에 따라 배우의 연기가 돋보일 수도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스태프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 전 “우리 반 모두가 참여해서 연극을 완성해 갈 거야.”라는 교사의 단호한 선언이 필요한 지점이다. 아무리 사소한 역할이라도 연극에 참여하여 ‘우리 반 모두가 만든 연극’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진다. 사소한 역할이라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때 연극 수업의 가치가 있다.

배우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극본에 쓰인 대로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힘을 쓴지만 이것 외에는 스태프의 몫이다. 스태프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대사와 대사, 혹은 배우의 연기 사이에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막과 막 사이에 소품을 치우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짧은 순간 어떻게 물건을 치우고 준비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 막과 막 사이에 조명이 꺼지고 켜지는 순간, 배우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음향으로 전달하는 것은 모두 스태프의 역할이 된다. 스태프는 배우의 연기를 돋보이게도 할 수 있고 우습게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스태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스태프의 역할이 연극 무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듭 강조할수록 좋다.

[8~15차시] 연극 연습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극 연습을 할 때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함께 고민하여 완성한 극본이 나오면 진지하게 공연을 준비하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 된다. 보통은 학생들이 “우리 언제부터 연습해요?”라는 말로 연극할 준비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연출을 위한 지도와 극본 읽기

① 전체적인 연출 계획 공유하기

본격적으로 연습할 준비가 되면 먼저 극본 읽기를 한다. 학생들이 연극 연습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연출가를 맡은 학생들을 따로 불러 지도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대본 읽기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연출가에게 막과 장을 중심으로 큰 움직임을 기획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막 단위로 배우의 연기와 스태프의 지원을 살펴보되 막과 막 사이에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한다. 이후에는 각 장면별로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을 지도한다. 처음 두세 번 연습할 때는 교사가 조언을 하고 이후 연습부터는 연출을 맡은 학생이 조언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연출 지도를 할 때에는 장면별로 끊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장면별 움직임은 처음에는 배우를 중심으로 연습한다. 배우의 대사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 스태프와 함께 연습한다. 연출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번에 전체 그림을 그려 가며 연출을 하기 어려워하면 장면별로 연습을 하도록 한다. 장면별 연습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따라 연습한다. 최종 리허설 때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점검하고, 본 공연을 할 때는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한다. 실수를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이어 가도록 지도한다. 관객들은 연극의 흐름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배우가 실수한 것을 모르니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갈 수 있다.

② 극본 꼼꼼히 읽기

극본 읽기는 연출을 돋기 위한 과정뿐 아니라 배우와 스태프의 역할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본을 읽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내용 파악을 위한 읽기이다. 내용 파악을 위한 읽기를 할 때에는 모든 구성원이 돌 아가며 내용 파악을 위해 연극 대본을 읽는다. 모든 구성원이 연극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두세 차례 읽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극본 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극본의 흐름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읽는 활동을 통해서 ‘극본을 쓰지는 못했지만 읽기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도 함께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는 스토리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읽고 나서 연극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우와 스태프 모두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도록 보충 설명도 필요하다.

둘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하며 읽기다. 연극 스토리를 모두가 이해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배역의 캐릭터를 찾아가며 읽는 활동을 한다. 이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배우의 캐릭터를 찾아간다. 질문을 하거나 성격을 찾아갈 때는 극본 쓰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학급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격을 찾아가면 뒤처진 학생들은 표현할 기회가 줄어든다. 배우의 캐릭터를 찾는 과정에는 국어 수업 내용을 적극 활용한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찾는 것이라는 내용이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나와 있다.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두면 연출가가 조언하는 경우나 스태프가 소품을 준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대본 읽기를 하는 까닭은 배우를 맡은 학생뿐 아니라 스태프를 맡은 학생도 같은 느낌으로 연극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면서 이 인물이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대본을 통해 배워 간다.

셋째, 배역 연구를 위한 읽기이다. 이때는 배역을 맡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읽는 활동을 한다. 스태프나 연출가를 맡은 학생은 배역을 맡은 학생이 자신의 역할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읽기 작업이 끝나면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소감을 말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 “지난번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 “시선 처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와 같이 지난번 대본 읽기 혹은 연습보다 나아진 점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고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 부분을 말할 때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 부분에서 감정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하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처럼 들리면 연기를 하는 학생이 위축되거나 감정이 상해서 연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쉽다.

③ 장면 만들기

연극 연습을 지도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하기보다 범주 혹은 영역을 정해서 지도하는 것 이 좋다. 크게 막과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가며 큰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각 장 혹은 장면마다 필요한 연기의 과정을 디테일에 집중하며 지도하는 것을 구분하면 도움이 된다. 연극의 큰 움직임을 정한다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 가는 과정이다. 극본에 있는 막과장을 중심으로 입장과 퇴장의 순서를 결정하고, 연기를 펼칠 공간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연극의 큰 움직임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첫째, 연극 무대 공간에 대한 점검과 장면에 따른 등장 및 퇴장을 결정한다. 산만한 무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둘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 안에 배우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배우의 이동에 따라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공유한다. 스태프의 역할을 맡은 학생이 공간 확보에 대해 공유하고 있어야 막이 내려왔을 때 신속하게 다음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때 지문의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지문이 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나타내고 무대 상황이나 인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

④ 장면 다듬기

연극의 큰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으면 세분화된 연습이 필요하다. 극본의 길이에 따라 작은 움직임을 지도하는 편이 좋다. 만일 2막 4장의 분량이라면 먼저 '장' 단위로 끊어서 연습을 지도하고 다음으로는 '막' 단위로 지도를 한다. 2막일 경우 순서대로 조금씩 연습량을 늘려 간다. 장과 막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각 장면 안에서 배우가 관객에게 감정과 생각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는 배우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부터 연출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나며 연출가와 배우 및 스태프의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연극의 수준이 달라진다.

연출가에게 몇 가지 지도할 내용은 배우의 발성(성량), 시선, 몸동작(제스처) 등이다. 연출가뿐만 아니라 배우를 맡은 학생 모두에게 지도하되 연출을 맡은 학생에게는 따로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후 연출자가 기준을 가지고 배우를 맡은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역할을 맡은 학생들끼리 개별 장면마다 그에 따른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학생들이 토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기를 하는 배우들 간의 시선 처리, 몸동작 등을 지도한다. 대사에 따라 상대 배우의 시선을 보거나 연기가 펼쳐지는 공간을 보기도 하고 관객을 보며 대사를 할 경우도 있다. 둘째, 배우의 성격에 어울리는 동작과 표정, 몸동작 등을 구상한다. 이때 배우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 배역이 이렇게 받는구나.’라는 연기의 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 셋째, 학생들에게 대사 전달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배우의 호흡, 속도, 입 모양, 발성의 크기 등이 대사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배우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발성, 발음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관객에게 배우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무대가 어색한 학생들은 대사를 할 때 상대 배우를 보지 않고 대사를 표현하거나 몸을 흔들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장면에서는 작은 움직임을 정할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면 좋다.



스태프와 함께 연습하기

⑤ 무대 구성을 생각하며 함께 연습하기

연습 초기에는 음향이나 조명과는 상관없이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연습한다.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음향, 조명과 함께 연습한다. 이때부터는 실제 공연할 장소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향이 들어갈 부분을 담당자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배우들은 막과 조명, 음향과 소품 의상과 어우러지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하며 연기하도록 한다.

연극의 큰 움직임을 정하고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시기가 온다. 학생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쌓여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만일 연습하다 학생들끼리 말싸움을 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학급 회의를 열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연극의 완성도에만 몰입하다 보면 공연은 잘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과의 관계는 흐트러지기 쉽다. 주요 갈등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배우 간의 갈등 상황

주·조연 배우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맡지 못한 학생이 주연을 맡은 학생의 연기나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생님 제가 대신 해 보면 안 돼요?”라고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단호하게 아직 기회가 주연을 맡은 학생에게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주연 배우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다. 그 후에 “너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저 친구가 연기하는 모습을 잘 봐 두었다가 따로 연습하면 좋겠다.” 정도로 여운을 남긴다.

배우와 스태프 간의 갈등 상황

배우와 스태프 간에 합을 맞추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배우는 어느 정도 연기를 잘하는데 스태프의 움직임이 꼬여서 여러 번 연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배우를 맡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교사는 스태프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 좋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스태프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거야.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좋은 연극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로 스태프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따로 스태프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배우의 연기를 자연스럽고 힘 있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니 순서나 시간 등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 보자.”라고 격려하는 편이 좋다.

스태프 간의 갈등 상황

음향이나 소품을 맡은 학생들 간에 합이 잘 맞지 않아서 연습이 중단되고 반복적으로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 조정을 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이밖에도 중간중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그 때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된다.

연극 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활동의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은 크게 나누면 연습을 마치고 돌아보면서 하는 피드백과 공연을 마치고 하는 피드백이 있다. 그리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드백도 필요하다. 이는 공연자뿐 아니라 관람자에게도 연극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수업으로 연결해 갈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연습 후 피드백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연습 후 피드백

배역을 결정하고 배우와 스태프가 2~3회 연습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어렵고 다른 친구들이 내가 연습하는 분량보다 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맡은 역할 가운데 어려웠던 점과 재미있었거나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공연을 앞둔 소감 등을 정리한다. 다음은 학생의 소감을 정리한 것이다.

- ① 내가 맡은 역할과 어려웠던 점
- ② 재미있었거나 보람을 느꼈던 점
- ③ 기대되는 점

• 김○연

- ① 내가 맡은 역할은 일진3이었는데 웃음기가 많은 성격 때문에 극 중 웃음을 참는 것이 어려웠다. 비슷한 역할을 맡은 친구들과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투는 일이 많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쉽지가 않았다.
- ② 친구들과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어 보람을 느꼈다. 항상 연극을 할 때 1막부터 끝까지 다하다 보면 나에게 '수고했어, 김○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좋았다.
- ③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그런 연극이 되겠지만 때로는 긴장이 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연극을 준비해 왔으니 연극이 상연되면 다른 사람에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역시 남다르다는 후기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이번 대본 수정 작업부터 연습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며 내 자신에게 "멋지게 할 거다."라는 말로 격려해 주고 싶다. 스태프, 배우, 총감독과 조연출, 음향과 조명까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6학년 4반 친구들 다 연극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고 힘들어도 잘 버텨 줘서 정말 고맙다. 모두 좋은 결과로 연극을 마쳤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얘들아~

• 조○현

- ① 조명을 담당했는데 연습하는 내내 조명 타이밍과 음향을 조화롭게 맞추기 힘들었다. 나무로 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팠다.
- ② 처음에는 조명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점점 실력이 늘어서 좋았다.
- ③ ‘스태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배우들은 잘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커야 할 텐데. ○○이 가 처음 시작할 때 말을 더듬으면 안 되는데, 준비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 안○희

- ① 나는 총감독과 영어 선생님 역할을 맡았다.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할 일만 하다가 무대 전체를 보면서 연습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분쟁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기본 아우트라인을 잡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다.
- ② 연습을 하는 순간 즐겁고 행복했다. 이번 공연을 올리고 나면 정말 활기차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 ③ 처음 내가 총감독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총감독은 연극이 성공하면 찬사를 받지만 실패하면 많은 비판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만큼 맡은 위치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 주셨다. 나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연습만 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떨린다.

[16~19차시] 연극 공연

연극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공연 무대를 위한 리허설에 들어간다. 리허설을 할 때에는 큰 흐름은 손대지 않고 각 장면의 디테일이 살아나도록 연습을 한다. 목소리 크기, 시선, 소품의 위치나 방향, 등장과 퇴장 장면 등 사소한 듯 보이지만 연극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연출가는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칭찬을 먼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수정해야 할 부분 한두 가지를 지적하도록 한다. 칭찬은 많이 하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적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연극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연출가의 피드백을 통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리허설이 한두 번 진행되면 공연 날 사회를 볼 사람을 정하는 것이 좋다. 사회는 연출을 맡은 학생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혹 부담스러워하면 배우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자의 역할은 공연의 시작 멘트, 공연 시 주의사항 안내, 커튼콜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멘트는 교사가 어느 정도 준비해도 되고 시간이 충분할 경우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해도 좋다. 사회자가 정해지면 리허설이 완성된다. 그리고 한두 번의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면 연극 공연만 남겨 둔 상황이 된다.



최종 리허설과 무대 공연

최종 리허설은 공연 하루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연습이 이루어질 즈음은 학생들의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는 시점이다. 최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격려하되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연습한 것에 익숙해지도록 집중한다. 연극 무대를 올리기 전 최종 점검할 부분은 배우의 발음, 속도, 연기, 스태프와의 조화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연극 공연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학생들은 연극 공연에 품 빠져 있는 상황이라 생활지도까지 잘 정돈된 채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무대에 서면 긴장을 한다. 공연하기 전 리허설을 할 때부터 교사가 할 일은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그때까지 연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칭찬을 해 주면 실제 공연에서는 잘 해결되기도 한다. 무대 공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배우나 스태프의 작은 실수가 공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무난하게 넘기는 일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 모두에게 서로의 실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공연에서 실수는 애드리브로 대응하고, 상대 배역이 실수할 경우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대 위에서의 실수는 공연을 만든 사람만 인지할 뿐, 관객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

명한다. 최종 리허설에서 충분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때는 대사가 꼬이기도 하고, 배우의 동선이 겹치거나 필요한 소품이 제자리에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란 전문 배우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 번 안내하는 것이 좋다.

- 03**
- 이런 경우도 있다. 주인공이 엄마에게 해야 할 대사를 아빠에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빠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당황하지 않고 “엄마에게 전해 달라는 거지?”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기한 적도 있었고, 필요한 소품이 책상 위에 있어야 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맡은 학생이 “이게 왜 여기 떨어졌지. 누가 다녀갔나?”라고 적절한 애드리브로 연기를 이어 간 적도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교사는 긴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해서 긴장을 풀어 주도록 한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연기가 되고 대사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실수했을 때, 관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극본에 있는 연기가 되는 것이고 관객이 알아차리면 실수가 되는 거야.”

교사의 격려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된다.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 이후의 일은 교사의 책임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차시] 연극 수업 마무리

연극 수업이 연극 활동과 다른 점은 수업으로 시작을 하고, 수업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연극 준비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연극 수업에서 중요한 평가가 된다. 연극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해도 좋지만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감 중심으로 확인한다. 반면 학습지를 통한 피드백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 후 피드백

공연을 마치고 나서 하는 피드백은 공연을 마친 다음날이 가장 좋다. 공연을 마치고 바로 피드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해는 공연을 마치고 피드백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연에 집중하느라 피로감이 남아 있어서 '재미있었다', '힘들었지만 좋았다.' 등 감정을 뚱뚱그려 한두 줄로 피드백을 정리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하루를 쉰 다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피드백을 했더니 공연을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고, 결과에 대한 뿌듯한 마음도 남아 있어서 생생한 감정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날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 ① 공연이 시작되고 공연 중에 느꼈던 마음이나 무대 인사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은?
- ② 연극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들었던 마음이나 그때의 느낌은?
- ③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쉬운 점이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 김○국

- ① 공연이 시작되는 음악이 나오고 OO(이)가 멘트를 할 때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몸이 떨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틀리면 그동안 준비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 거야.'라는 생각에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대사를 이어 나갔다.
- ② 무대에 오르기 전 대사를 틀릴까 봐 바짝 긴장을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무대를 보여 주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연극을 하던 도중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할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 대사를 외우고 있었다.
- ③ 만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전학생 역할을 해 보고 싶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정과 결과를 100%로 채운 것 같아서 좋았고 연극을 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전학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

• 송○윤

- ①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차분하게 풀어 가는 게 보기 좋았고 무대 인사가 조금 어색했지만 나름 노력한 것이 눈에 보여서 좋았다.
- ② 약간 긴장이 되었고 평소처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③ 만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진 역할을 해 보고 싶다. 일진 역할을 한 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내가 하면 크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은 대사를 할 때 어디에 서서 누구를 보고 대사를 해야 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 윤○지

- ①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 참기가 힘들었다. 대사를 할 때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라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관객의 반응이 궁금했다.
- ②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긴장이 되었다. 몸이 떨리고 잘 연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 ③ 오늘 옷을 조금 더 날라리처럼 입고 올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 때도 그랬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았던 것 같아서 크게 낼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 더 일진 역할을 해서 이번 실수를 만회해 보고 싶다.

관람객 피드백

관람객의 피드백을 통해 관객이 연극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게 될 때, 공연자들은 자신들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또 관람객은 자신들과 같은 학년 친구 혹은 형, 누나들의 공연을 통해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도전의식과 공연에 참여했다는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다. 6학년 여섯 반과 3학년, 4학년 한 반씩, 총 여덟 반이 2회에 걸쳐 연극을 관람했다. 관람을 마치고 6학년을 대상으로 관람 소감을 적는 것으로 한 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이 부분은 동 학년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시간을 조율했다. 연극 관람을 마친 학생들에게 ‘연극 공연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기자의 연기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소감’을 피드백 받아 우리 반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연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김○진: 멱살 잡고 때린 후 불이 꺼지는 타이밍이 잘 맞았고, 일진, 전학생, 선생님이 연기를 잘해서 진짜 같았고 실감이 났다. 예상하지 못한 등장인물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연기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멋있었다.

· 강○우: 주인공인 전학생의 연기가 실감 나게 느껴졌고 공연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급식 시간에 식판을 던지는 장면에서 다른 곳에 떨어뜨리지 않고 알맞은 각도에서 잘 캐치한 것이 인상 깊었다. 연기자의 연기를 보고 1~2주 연습한 것이 아니라 꽤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했다는 것이 보였다.

· 정○미: 주인공이 얼굴 표정 연기를 잘했고, 영어 선생님 성대모사를 잘했다. 음향 넣어주는 친구들도 타이밍 맞게 잘했고, 조명 끄는 친구도 연극의 장면을 잘 맞춰서 잘했다. 그러나 조명이 꺼졌을 때 관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김○주: 일진이 급식을 먹고 전학생에게 “내 급식판 네가 치워라.”라고 하며 급식판을 던질 때 그 급식판이 딱 맞게 떨어져서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일진이 때리려는 찰나 불을 끈 것이 인상 깊었다. 4반 모든 친구들이 협력해서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부러웠고, 공연이 진짜 재미있었다.
- 진○서: 진짜 배우처럼 잘하지는 못했지만 재미있었다. 연기하는 장면에 잘 맞춰서 조명이 꺼지고 켜져서 좋았다.

글을 마치며

연극 수업을 마치고 관람자들의 피드백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다른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10년 후에 6학년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날 것 같니?”라고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극 이요!”라고 답을 했다. 실제 졸업을 하고 학교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물으면 학급 캠핑과 더불어 연극 수업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한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살아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교사에게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연극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빛날 수 있는 수업이다. 혹 연극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원고가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N**

수업에 잘 쓰이는 연극 관습 모음

글_ 편집실



교육연극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연극 관습을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 연극적 기법을 학습 과정에 응용하여 참여자가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연극을 통한 교육은 참여자의 잠재력을 끌어 내고 창의력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연극 관습을 소개합니다.

01

역할 내 교사

TIR, Teacher in Role

‘역할 내 교사’는 교사가 극 상황 속의 여러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교육연극 기법입니다. 교사는 교사가 아닌 다른 역할이 되어 연극적 상황을 이끌어 냅니다. 교사가 맡은 역할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면 학생들이 연극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연기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활동이 참여자의 아이디어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해 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역할 내 교사’는 교사가 필요한 순간에 극 중으로 들어가 역할을 하고 다시 교사로 나오면서 교육연극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돋습니다.

02

정지 장면

Still Image, Tableau

‘정지 장면’은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참여자가 대사나 움직임 없이 신체를 이용하여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정지된 동작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텍스트를 단순하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생각해서 보여 주는 재창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주제를 충분히 잘 이해한 다음에야 특정 장면을 떠올려 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판단력을 길러 줍니다. 모둠을 나눠 이야기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해당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을 만드는 연극 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03

팬터마임

Pantomime

‘팬터마임’은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 사물을 흉내 내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마임을 활용한 극의 형식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판토(panto)’와 흉내 내는 사람이라는 뜻의 ‘미모스(mimos)’가 합쳐진 말입니다. 극중 장면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대사 없이 표현하면서 참여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느낌을 몸으로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연극에서는 해설자가 해설을 하면 그 이야기에 맞는 몸짓이나 동작을 만드는 해설이 있는 팬터마임, 빠른 움직임 팬터마임, 느린 동작 팬터마임 등으로 변형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Information

04

즉흥극

Improvisation

‘즉흥극’은 대본이나 연습 없이 참여자 간에 약간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극으로, 즉흥 표현을 확장시킨 활동입니다. 인물, 소재, 상황 등의 간략한 설정을 하고 즉흥적으로 연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본을 외우거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자유롭게 연기해 보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지 장면, 마임, 즉흥극의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무언극에서 대사를 내뱉어 보는 활동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즉흥극을 바탕으로 대본이 있는 역할 놀이 등으로 이어 가며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05

핫 시팅

Hot-Seating

‘뜨거운 의자’를 뜻하는 핫 시팅은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방식의 토론적 연극 기법입니다. 극중 인물을 맡은 참여자가 의자에 앉고, 다른 참여자가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생각이나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의자에 앉을 인물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참여자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정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다른 참여자는 질문을 통해 인물이 한 행동의 이유,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이해해 보는 활동입니다.

06

빈 의자

Empty Chair

'빈 의자'는 가상의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는 연극적 기법입니다. 참여자가 의자에 직접 앉아 활동이 이루어지는 '핫 시팅'과 달리 '빈 의자'는 빈 의자를 두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가상의 인물을 두고 참여자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며 이야기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 보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모습이나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빈 의자'는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07

플래시백

Flashback

'플래시백'은 시공간을 건너뛰어 과거를 보여 주는 연극·영화적 기법입니다. 극중 인물이 옛 기억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중요한 장면을 회상함으로써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인과를 설명해 줍니다. 사건 당시 인물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장치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 정지 장면 만들기, 마임 등의 다른 연극적 기법과 연결하여 활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장면을 잊는 또 다른 기법으로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여 보여 주는 '플래시포워드(Flashforward)'도 교육연극에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연극,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도할까?

독일

매년 15개의 연극제가 열려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독일 문화생활의 중심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의 연극 교육이 특징적입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공교육에서 연극 과목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육 정책 차원에서 연극을 사용한 교수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어(독일어)나 외국어 등 언어 과목에서 연극을 교수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카를스루에,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등지에서는 지역의 극장에서 '학교 연극 주간'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연극 연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후원합니다. 연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각 학교의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며 방과 후 연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

체코의 학교 문화 예술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철저하게 실기 위주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고 체계적이며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설립된 예술 초등학교를 별도로 두고 있어 정규 초등학교에서 소홀하기 쉬운 예술 지도를 보완해 줍니다. 정규 학교가 끝나는 오후 시간대에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일반 성인들도 소정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별도의 예술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학교 단위 문화 예술 교육은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작 작업뿐 아니라 예술 감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교육 제도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문화 예술 교육 정책의 흐름은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을 포함한 문화 예술 교육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통합적 예술 교육(Interdisciplinary Arts Education)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 예술 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일상 생활과 관심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힙합, 재즈 공연 등 대중문화를 겪들인 예술 교육 커리큘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 활동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접하며 감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격려합니다. 런던 시내에 위치한 성 가브리엘 초등학교가 좋은 사례입니다. 연극을 활용하여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극, 무용, 무언극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이 학교 연극 수업의 핵심입니다. 가족을 초청해 조회 시간에 작품을 발표하고, 부활절 연극, 시 낭송 대회를 비롯해 각종 연중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극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방과 후 특별 활동을하면서 예술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학교와 지자체의 연대에 따른 문화 예술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 예술 교육은 지역이 협조하여 학교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험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전통 예능을 방과 후나 주말에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부터 퇴직 교사, 퇴직 회사원 등이 배치되어 연극, 독서, 악기,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을 지도하도록 합니다. 어린이 문화 예술 공간인 ‘마에바시 아동센터’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극 클럽을 운영합니다. 연극의 기초를 배우고 정확한 발음과 표현력,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민 예술제, 아동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실제 공연도 펼치고 있습니다. **N**

* 위의 해외 사례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3년 4분기 교육 분야 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수능 결과를 고려하여 대입 및 진로를 설계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몇 법안을 발표하고 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01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1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눈여겨볼 점은 지원자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의 비율이 35.3%로, 1996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10명 중 3명꼴이 N수생인 셈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출제 방향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2

「학교 폭력 예방법」 일부 개정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선생님은 교육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소송 까지 법률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존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4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 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교육부,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발표

2023년 기준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네 가지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①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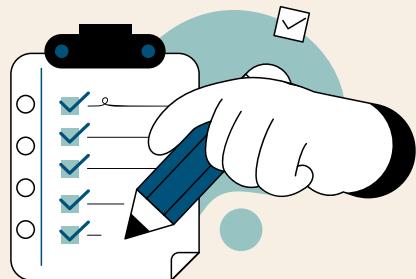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융합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더 심화된 내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02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② 고교 내신 5등급제

내신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내신은 모든 선택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A~E 성취도평가)를 시행합니다. 다만,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 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03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③

교사 평가 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합니다.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04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④

수능 출제 자격 기준 강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수능 출제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 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하점이 없도록 보강하고, 출제가 끝난 후에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



긍정 훈육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적 개입과 자연적 결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비통함 속에서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하나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년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모호한 문장은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아동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이 법을 악용해 무고한 교사를 협박하거나 고소하는 사건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를 겪으며 쓸쓸히 교직을 떠났다는 소식은 모든 교사를 분노하게 하였다. 아동 학대에 대한 판단이 사례판단위원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되거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학급을 운영하면서 교사는 아이들과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신중하고 단호한 교육적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학대와 훈육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미국 긍정훈육협회의 학급 긍정 훈육법과 긍정의 훈육 이론에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아동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김 성 환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동료 정유진 선생님의 소개로 2013년 PDC를 만났고, 함께 책을 번역하며 PDC로의 여행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초등교사이다. 지금은 양평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서 학교폭력책임 교사를 하며 민주적인 학급과 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학급긍정훈육법』, 부모를 위한『긍정의 훈육』,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격려 수업』 등 다양한 책들을 번역했고 전국의 PDC를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PDC 전국교사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 학대의 신체 학대와 긍정 훈육의 신체적 개입

아동 학대의 신체 학대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주거나 기합을 주는 경우
아동 학대의 정서적 학대	가해자가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수단으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
긍정 훈육의 신체적 개입	흥분한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다툼이 있는 아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위험하거나 해로운 물건,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리거나 손으로 끌기 등 상황에 따른 신체적 개입을 하는 경우

신체 학대와 신체적 개입의 차이는 위 표와 같이 목적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신체 학대는 수직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이고, 피해 아동은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가 흥분을 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아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몸으로 막거나 힘을 사용해 제지하는 모든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체 언어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수직적 관계에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지만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다.

훈육과 학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칫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단호한 훈육의 방법으로는 논리적 결과 부여, 기회의 제한, 교육적 피드백, 성찰문 쓰기, 연습, 타임아웃, 소지품 확인 및 보관, 교육적 지시, 적극적 행동 수정, 교육적 권유 등이 있다.

논리적 결과 부여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부여하여 행동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처벌 대신 해결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3R 1H를 기준으로 실행한다.



예를 들어 고의적이거나 태만으로 인한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쉬는 시간을 제한하고 공부를하도록 한다.

기회의 제한은 아이의 성장을 기회 - 책임 -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모든 아이는 기회를 가지지만 기회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하지 않을 경우, 그 놀잇감 사용에 제한을 둔다. 만약 체육 시간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우에는, 경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

축구는 매우 격렬한 스포츠여서 선수들이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 심판은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퇴장을 주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도 주의를 주거나 반복 시 퇴장을 준다. 이는 그 선수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면 기회를 제한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모든 상황을 좋은 말로 타이를 수는 없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기회를 잃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그 장면을 보며 행동에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또 학급이 야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동 중에 심한 장난을 치거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화를 내기보다는 단호한 어조로 “우리는 아직 야외 수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 준비가 되면 그때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교실로 돌아오는 것도 기회의 제한이다.

교육적 피드백은 아이 존재 자체를 좋은 아이, 나쁜 아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훈이의 발표 내용은 자세한 부분이 좋았어. 다만 발표할 때 문장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와 같이 말해 주는 것은 아이가 다음에 발표할 때 도움이 된다. 교육적 피드백이란 ‘잘한 점(What went well)’ 뿐만 아니라 ‘개선할 점(What need improvements)’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긍정 훈육에서 는 잘한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개선할 점을 이어서 말한다.

성찰문 쓰기는 잘못한 행동에 대해 일어난 일, 잘못한 점이나 개선할 점, 피해를 준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 앞으로의 다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사과 등을 적으며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글을 쓰는 행위이다.

긍정 훈육에서는 모든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며 이때 자신이 한 실수나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을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 그리고 생활교육위원

회에서 30일 성찰문 쓰기, 15일 성찰문 쓰기 등의 조치를 내린다. 아래의 성찰문은 친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30일 성찰문 쓰기를 한 것이다. 아이는 잘못한 행동을 적어 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꾸준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성장하고 있는 자녀에게 매일 격려의 글을 써 준다. 이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으로 자녀의 행동이 개선된다. 아이의 행동 개선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하여 성찰문 쓰기를 한다.

스스로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는 글쓰기	
알려두기!	
<p>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p> <p>다음 과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했거나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것을 3개씩 적습니다. 내가 한 행동 중에서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1개 적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지를 적습니다. 친구 성폭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을 하루에 1개씩 적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한 줄 글쓰기로 응원과 격려를 해 줍니다. 	
날짜	(5)월 (12)일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한 것, 또는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시험 열심 했던 것 학원시험 잘 본 것 축구 열심히 했던 것
하루 동안 스스로 고쳐야 되는 나의 말과 행동과 어떻게 고칠지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잘못한 말이나 행동 : 엄마아빠나 다른 사람을 안드는 말입니다 나와의 약속 : 엄마아빠 말 잘 듣기
친구 성폭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합니다.	이가 나한테 계속 와서 키우는 달라해서 이가 잘고 살이라고 줍니다.
부모님의 한 마디	이 너가 원하는 걸 꼭 적당하게 표현해보길 좋아. 엄마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언제나 너의 대상대로 다 해주는 걸어. 너가 기본적으로 험비해질 것은 참고 약속을 지키면서 너의 달콤리를 네이해지 말아!? 엄마도 좀 더 너의 맘에 귀기울이며 좀 더 부드럽게 대화하는 일도록 애써보자. 이 너를 많이 사랑해요

연습은 이동 시 줄을 서거나, 모둠으로 전환하기, 대피 훈련 등에서 줄을 서서 이동하는 연습을 할 경우,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에 있을 때 학급 자체 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다. 2층에서 1층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소 장난을 치며 연습하느라 2분 정도로 꽤 시간이 걸렸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학교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연기를 마시게 되고요.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할 겁니다.” 아이들과 세 번 연습을 반복했고, 마침내 아이들은 1분 만에 안전하고 조용하게 밖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떠드니? 왜 이렇게 느리니?”의 비난의 말이 아니라 연습하는 행동인 것이다.

타임아웃은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분리하는 것,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실의 특정 공간이나 학교의 정해진 장소에 교직원의 안내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아이들에게 미리 타임아웃의 필요성을 알려 준다. 이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회할지, 앞으로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즉,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점을 두는 것이다.

소지품 확인 및 보관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 등의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를 방지하는 것은 그 학생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는 공항이나 야구장에 들어갈 때 규정에 어긋나는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소지품을 맡기거나 스스로 버려야 입국이나 입장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은 학교 규정에 어긋나는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하고 만약 가지고 왔다면 스스로 물건을 버리거나 지정한 곳에 물건을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실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 않다.

교육적 지시는 수업 중 땐짓하는 학생에게 “집중하자. 칠판!”과 같이 여러 명 앞에서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넌 형편없는 아이구나!”처럼 존재를 비난하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행동 지시(Behavior Indication)이다. 존재를 비난하는 행위와 교육적 지시의 큰 차이점은 시점에 있다. 교육적 지시에서는 이미 잘못한 행동을 한 아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알려 준다.

적극적 행동 수정의 대표적 예시는 교사가 뛰어다니는 학생을 불러 반복적으로 바르게 걷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1인 1역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거나 청소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하도록 하는 것,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행동 수정은 학생들은 말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에 기반한다.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혼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즉 아무도 없을 때는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① 규칙 확인(Review): 규칙이 뭐였을까요? ② 되돌아보기(Reflection):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③ 다시 해 보기(Rehearse): 다시 바르게 이동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규칙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외부의 통제보다는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적 권유는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교사가 하는 적극적인 권유이다. 학교의 행사나 대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음식을 깨끗하게 먹도록 권유할 수도 있다. 중성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중성 행동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닌 어른의 관점에서 했으면 하는 것들이다. 가령 외모나 복장에 대한 부분이나 대회 참여 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한다. 교사와 부모가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는 호기심 질문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미성년에게는 교사나 부모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권유하는 단호함도 함께 필요하다.

아동 학대의 방임과 긍정 훈육의 자연적 결과

지금까지 아동 학대의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개입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방임과는 구분되는 긍정 훈육에서의 자연적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 학대의 방임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숙식, 의료,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긍정 훈육의 자연적 결과	아이가 경험을 통해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관점. 수업 준비물을 반복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불편함을 스스로 겪도록 하여 다음에는 준비물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함. 이때 교사가 추가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 결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가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도록 함.

아동 학대의 방임과 긍정 훈육의 자연적 결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방임은 아이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지 않아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자연적 결과는 교육의 과정으로써 아이가 경험을 통해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방임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자연적 결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개입을 하지 않고 관찰한다는 점이다.

방임과 자연적 결과의 개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방임이다. 이와 달리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아이에게 “다음 저녁은 7시란다. 그러니 지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거야.”라고 말을 해도, 아이가 “괜찮아. 난 안 먹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이 식사가 끝나면 식탁을 정리하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 어떤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 자연적 결과이다.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들다는 것을 말이 아닌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적 트렌드가 ‘아이들은 고통 없이 즐겁고 기분 좋게 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이 같은 자연적 결과를 방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자연적 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사가 설명한 것을 학생이 잘 듣지 않고 다시 물어볼 경우, 대답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학생은 한 번 설명할 때 듣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말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이런 경험을 쌓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에서 말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긍정의 훈육에서 말하는 교육 활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긍정의 훈육에 기초하되, 긍정의 훈육을 공부하고 실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두텁게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교사 스스로도 학급을 운영해 나갈 때 교육과 학대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React)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도(Proactive)하길 바란다.

『혁신수업N』에 봄부터 겨울까지 네 번에 걸쳐 학급경영 이야기를 담았다. 매화가 필 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국화가 필 때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매화, 모든 꽃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은 가을에 마지막으로 피는 국화. 2023년의 대한민국 교사들은 매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 같은 차디찬 교육 환경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또 2023년의 대한민국 교사들은 국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은 점들이 선이 되고, 물결이 되어 슬픔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까.

나는 단 한 번도 학급 운영이 완벽하게 마음에 든 적이 없었다. 힘든 아이가 있었고, 수업도 내 기대만큼 되지는 않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경력이 20년이 넘어가고, 이런 저런 공부를 하는 데도 학급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의 능력 부족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매화처럼 때에 맞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국화처럼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애썼다.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면서 우리 교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교사의 삶은 완벽이 아니라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교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N



*김성환 선생님과 PDC 전국교사모임의 자세한 활동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C 전국교사모임
band.us/@pdc





AI 디지털 교과서 톺아보기

얼마 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와 언론을 통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이슈로 잠잠해 보이지만 내년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주도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보충 심화 학습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넷 티-클리어 등 외부 자료와 연계가

조재범

보라초등학교 교사이다. ICT로 시작해 영어 그리고 메타버스, 인공지능(AI)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23년째 교육 일선을 지키고 있다. 현재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교육 이슈와 초등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교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크리에이터협회(t-creator.com)'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23년 경기 교사 연구년 연구교사로서 미래 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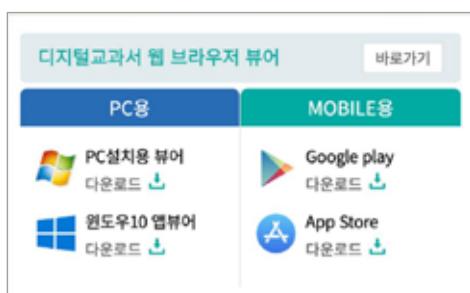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가능한 학생용 교과서를 일컫는다.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사회, 과학, 영어), 중학교 1~3학년(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 영어 과목(영어, 영어 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다. 모든 학년에서 영어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시수가 많은 국어나 수학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현 디지털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전용 앱과 웹으로 동시에 접속 가능



기존 디지털 교과서 접속 방식

현재 디지털 교과서는 전용 앱과 웹으로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접근성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다. 전용 앱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면 수시로 하는 업데이트와 기기의 용량 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앱에 저장된 콘텐츠로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 반면 웹으로 접속이 가능하

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용량 문제가 해결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다양한 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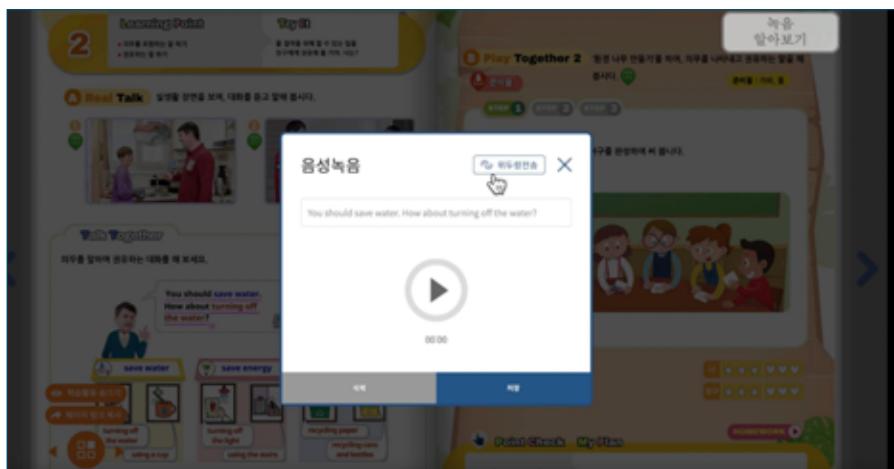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AR마커를 활용해 가상체험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 과학 과목에서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학습 자료이다.



AR마커를 통해 증강현실을 구현한 화면(출처: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3) 개인 학습 기록 저장 기능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로 필요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위드랑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에 메모하거나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등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음성을 위드랑으로 전송하는 화면(출처: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홈페이지)

또한 서책의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교사나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 이질감이 없고 수업 시간에 서책형 교과서의 보조 수단으로 충실히 활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이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한계

(1) 다양한 디바이스 이용의 어려움

앱과 웹을 동시에 활용하는 점은 좋으나 앱이 완벽하지 않은 편이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안정성과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PC에서의 작동에 최적화되어 있고 휴대폰용 화면이 제공되지 않는다. 아래의 휴대폰 화면 이미지를 참고로 하자면 휴대폰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세로로 보면 상하에 여백이 생기고 가로로 보면 글자 인식 자체가 쉽지 않다.



휴대폰 화면에서 보는 디지털 교과서

(2) 아쉬운 AR 기능

AR 기능이 탑재되어 사회, 과학 교과서에 활용되는 시도는 좋았으나 앱이 매우 불안정하고 완성도가 아쉽다. 일단 실감형 콘텐츠라는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그나마 성능이 안정적인 편이다. 그마저도 최적화가 잘 되지 않아 휴대폰 사양에 따라 구동 성능이 제각각이다.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사용하기 쉽지 않은 위두랑과의 연동

학생들의 자료가 위두랑과 디지털 교과서에 연동이 되는데 오류가 많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학습자의 녹음 음성이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다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많은 것이 아쉽다.

가장 아쉬운 점은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파악해 개별 학습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쉽게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고 평가와 피드백에 반영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 현장에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변화를 가져오고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의 활용이 용이하고, 학부모 또한 학습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이스(NEIS) 및 시도교육청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앱이 아닌 웹으로 구동되고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구동할 수 있어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므로 용량의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구성도(출처: 교육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시보드이다. 대시보드는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교육부에서는 세 가지 대시보드 화면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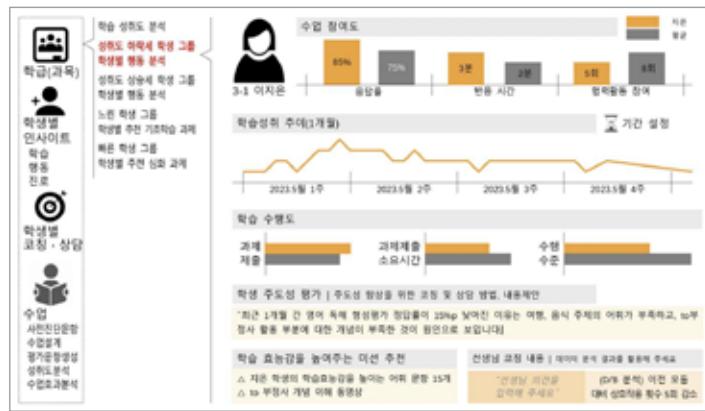
학생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는 없고, 일부 사교육 유료 서비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면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용 대시보드에서는 왼쪽에 바로가기 메뉴들이 보이고,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화면에서는 교사의 학습 피드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인지적, 정의적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AI에게 질문하기, 다문화 번역기 등도 있다.



학부모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학부모용 대시보드에는 학습의 학습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메뉴들이 왼쪽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화면에는 교사의 양적, 질적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영역별 분석 자료를 통해 자녀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학, 진로 추천 메뉴까지 있다. 각종 과제 수행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에 얼마나 참여했고 성장했는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혹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교사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대시보드를 보면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용 대시보드 예시(출처: 교육부)

교사용 대시보드는 앞에서 본 대시보드와 결이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두 개의 대시보드는 학습자 중심이라면 교사용 대시보드는 교수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화면 왼쪽 메뉴에서 학급 전체와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 학생의 수업 참여도, 학습 성취, 수행도 등을 볼 수 있고 AI 분석을 통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미션을 추천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완벽해 보인다.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같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필자가 T.O.U.C.H 연수 강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AI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을 적어 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1.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기반의 구축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 태블릿PC가 들어와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태블릿PC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구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태블릿PC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1인 1 태블릿PC로는 부족하다. 최소 학생 대비 120%의 태블릿PC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의 속도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속도와 안정성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앱이 아닌 웹에서 구동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단은 단 한순간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AI 요소를 활용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일이 많지 않지만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전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소 한 시간 이상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태블릿PC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 업데이트, 유지 보수 등은 학교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태블릿PC가 투입된다면 이러한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산 실무사를 배치하여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거나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관리 요원을 순회시키는 방법 혹은 외부 유지 보수업체를 교육청 단위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2. 안정적인 구동

AI 디지털 교과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능보다는 알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화려한 그래픽, 다양한 효과, 놀라운 사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알찬 구성이다. 보통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화려한 UI(User Interface)를 강조하는데, 이보다는 UX(User Experience)를 강조했으면 한다. 쉽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기능이나 과도한 정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또 고사양 태블릿PC에서 작동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사용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전에 태블릿PC를 보급받은 학교들은 벌써 노후화 걱정을 하고 있다. 만일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그램이 고사양 기기를 필요로 한다면 현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유연한 접근성과 통합성

AI 디지털 교과서는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므로, 유연한 접근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는 개인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기기에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플랫폼 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연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양한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며, 모든 기능이 각 기기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 성과, 피드백 등의 정보를 기기 간에 쉽게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합성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 나갈 수 있게 해 주며,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LMS), 온라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4. 현장 중심의 AI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요구와 학교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다음과 같이 현장의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과정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설계, 내용,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팀이 적절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의 실제 요구와 맞물려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들이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경험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친화적인 접근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협업적 개발 과정과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틀어보았다.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장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려만 하기보다는 다가올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N**

*조재범 선생님의 에듀테크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youtube.com/@bestcho



이종대왕 수업놀이

즐겁게
암기하는
반복 학습
활동



이종혁

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사이다. 인디스쿨에 많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수업놀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교육 콘텐츠 유튜브 '이종대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놀이 연구회 '집현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수업놀이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서로 『쏭쌤&이종대왕의 초간단 교실 놀이백과』, 『수업, 놀이를 제대로 만나다』 등이 있다.

창의력을 강조하다 보면 흔히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한 암기나 반복 학습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 또한 반복하여 쌍을 찾는 활동을 소개할 때마다 암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고는 한다. 이런 질문에는 항상 암기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인지 심리학자 브라운(Brown)과 뢰디거(Roediger)는 “관련 기본 지식이 풍부해야 낯선 문제를 다루는데 창의력을 발휘한다. 지식만 많고 창의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탄탄한 토대가 없는 창의력 역시 모래성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루하겠지만 지식을 반복 훈련하여 암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루한 반복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번에 소개할 몇 가지 수업놀이는 학생 모두가 끊임없이 참여하며 반복 학습으로 즐겁게 암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1. 문제 사냥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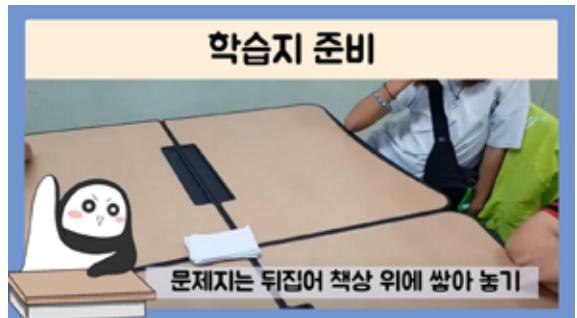
① 아래 표처럼 문제와 답으로 구성된 카드를 열여섯 개 제작한 뒤 모둠 수만큼 출력하여 나눈다.

<○x퀴즈> 일본은 1877년 만든 ‘대일본전도’라는 지도에 독도를 포함한 자국의 영토 전체를 표기했다.		독도는 ○○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암석이 많다. ○○에 해당하는 말은?	
정답	×	정답	화산
우리나라는 독도를 ‘이것’ 제 336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독도에 있는 바위 중 코끼리가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과 닮은 바위의 이름은?	
정답	천연기념물	정답	코끼리바위
독도는 ‘이 새’의 집단 번식지 중 하나이다. 이 새의 이름은?		독도 주변 바다에 여러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답	괭이갈매기	정답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기 때문 (먹이가 풍부하다.)
독도의 바다 밑바닥에 묻혀 있는 자원은?		임금이 내린 명령을 가리키는 말은?	
정답	가스 하이드레이트	정답	칙령

-
- ② 주어진 시간 동안 모둠원들끼리 카드의 문제와 답을 빠르게 살펴보며 지식을 암기한다.



-
- ③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모둠 책상에 카드를 뒤집어 쌓아놓는다. 그런 후 모둠원 한 명당 한 장씩의 카드를 갖는다.



-
- ④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맞춰 카드 한장을 들고 다른 모둠의 친구를 만나 가위바위보를 한다.



-
- ⑤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의 문제를 이긴 학생에게 출제하여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수업놀이

⑥ 정답을 맞힌 학생이 상대의 카드를 획득한다.

그림에서는 1모둠 학생이 정답을 맞혔기 때문에 2모둠 학생의 카드를 가져간다.



⑦ 획득한 카드는 자신의 모둠 카드 더미 밑에

넣은 뒤 다른 상대를 만나러 간다.



⑧ 카드를 빼앗긴 학생은 다시 자신의 모둠 카드

더미에서 맨 위에 놓인 카드 한장을 가지고 다른
상대를 만나러 간다.



⑨ 상대의 카드 한장을 얻으면 모둠의 카드 더미에 카드 한장을 적립하고, 자신의 카드를 잃은 학생은 모둠의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장을 축내므로, 모둠별로 카드 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된다.

⑩ 만약 답을 틀렸거나 정답을 몰랐을 경우에는 반대로 상대가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문제를

출제하여 상대가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답을 틀린 상대에게는 반드시 답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준다.

- ⑪ 둘 다 틀렸을 경우 그냥 헤어진다. 이때도 답은 서로 반드시 공유하고 헤어진다.



이종대왕 꿀팁 🐝

이 활동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 각 5분씩 진행한다. 전반전 5분 정도 활동을 한 뒤 각 모둠이 몇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진행한다. 후반전에서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모둠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다. 후반전은 카드를 방어하는 모둠이나 카드를 가져가려는 모둠으로 활동이 더욱 치열해진다. 또 교사는 카드를 많이 빼앗긴 모둠은 더 앓을 것이 없다며 오히려 후반전에서 대역전극이 가능함을 알려 준다. 만약 카드 수가 모둠원 수보다 적을 경우(모둠원은 네 명인데 카드가 세 장 이하일 경우)는 UN에서 구호물자가 도착했다며 미리 준비한 여분의 카드 세트를 나눠 주며 모든 모둠이 활동을 마칠 때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라미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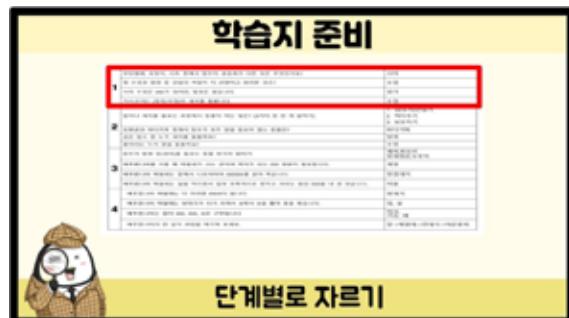
- ① 4단계 문제지를 준비한다. 단계별로 3~4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기한다. 4단계 문제지를 A4용지로 네 부 출력한다.

*1단계 문제지는 네 장, 2단계는 세 장, 3단계는 세 장, 4단계는 두 장이 필요하다. 1~4단계 문제가 A4용지 한 장에 들어가도록 하여 네 부 출력 후 단계별로 자르면 편하다.

1 단계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소 양이 달라서
	알코올램프 위에 철판을 올리고 성냥 머리 부분과 성냥 나무 부분을 가열하면 성냥 머리 부분부터 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화점이 더 낮아서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발화점
2 단계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연소
	연소가 일어나려면 필요한 것을 모두 말해 봅시다.	탈 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물, 이산화 탄소
3 단계	투명한 아크릴 통에 불인 (이것)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이 연소하면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물질이 연소한 후에 이산화 탄소가 생겼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석회수가 뿐옇게 흐려짐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 불을 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소화
4 단계	초에 바람을 불어 초를 끄는 것은 연소의 조건 중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탈 물질 제거
	물수건으로 덮어 촛불을 끄는 것은 연소의 조건 중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모두 말하기)	산소 공급 차단,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물질을 태우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해 봅시다.	부싯돌로 마찰하기 등

수업놀이

- ② 출력한 문제지는 단계별로 잘라 놓는다.



- ③ 두 팀으로 나누고 한 팀은 그림과 같이 피라미드 대형으로 칠판을 등지고 의자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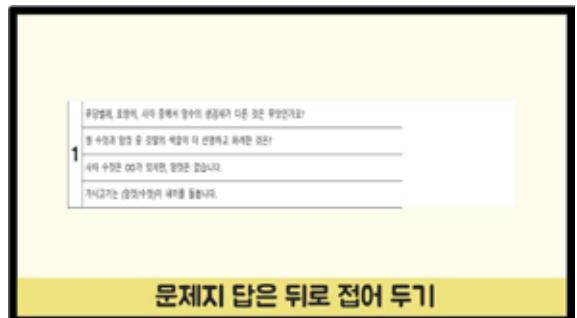
- ④ 나머지 한 팀은 다음 그림처럼 줄을 맞춰 선다.



- ⑤ 교사는 준비한 문제지를 단계에 맞게 책상에 올려 둔다. 줄을 선 학생 바로 앞의 책상들이 1단계이며 칠판에 가까워질수록 단계가 올라간다.



-
- ⑥ 문제지를 받은 학생은 답을 뒤로 접어 놓는다.



문제지 답은 뒤로 접어 두기

-
- ⑦ 타이머를 4~5분 정도로 설정한다.



-
- ⑧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에 맞춰 첫 번째 줄의 학생부터 바로 앞의 1단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책상의 출제자에게 가서 문제를 푼다. 출제자는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짚거나 몇 번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말해 준다. 단계별로 한 학생당 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
- ⑨ 1단계 문제를 맞힌 학생은 2단계 책상으로 이동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던 다음 줄은 1단계 문제를 해결한다.



수업놀이

- ⑩ 만약 틀렸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1단계 줄로 가며 이때 반드시 답을 듣고 가야 한다.



- ⑪ 결국 각 단계의 문제 정답을 한 문제씩 네 번 연속으로 맞히면 통과할 수 있다.



- ⑫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통과한 학생은 자신의 팀에 통과 표시를 하나 그리며 다시 1단계 줄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 ⑬ 타이머의 시간이 끝나면 팀별 역할을 교체하여 똑같이 진행한다.



이종대왕 꿀팁

이 활동은 4~5분 정도 번갈아 가며 활동을 마친 뒤 좀 더 짧은 시간 동안 추가적인 문제를 풀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 몰입함으로써 성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활동이 끝난 뒤에 문제지의 답을 지우고 학습지 형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며 마무리하면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 모두의 딩고

① 카드 세 장의 내용이 한 쌍이 되는 네 쌍의 카드를 만들어 학생 수만큼의 쌍으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스물네 명이면 네 쌍을 여섯 부 출력하여 스물네 쌍이 되도록 한다. 만약 스물다섯 명이라면 네 쌍을 여섯 부 출력하여 스물네 쌍을 만든 뒤 한 쌍만 추가로 출력하면 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동부 지역 바닷가에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있다.	왼쪽 표에서 빨간 선으로 묶인 세 장의 카드는 '중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 쌍이 된다.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공업 지역이 발달했다.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다.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우랄산맥이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가전, 휴대 전화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② 카드를 섞은 후 한 명당 세 장씩 뽑는다.

이렇게 모든 학생이 카드 선택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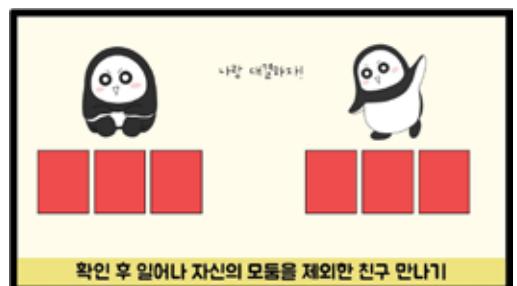
한 명당 3장씩 뽑기(미리 보면 반칙)

③ 활동을 시작하면 자신의 카드를 살펴보며 어떤 쌍을 모을지 생각한다. 그림처럼 고양이와 강아지(새끼를 낳는 동물), 사마귀(알을 낳는 동물)를 가지고 있다면 새끼를 낳는 동물 카드를 모으는 게 유리하며 사마귀가 필요 없는 카드가 된다.



시작하면 자신의 카드들을 보며 어떤 쌍을 모을지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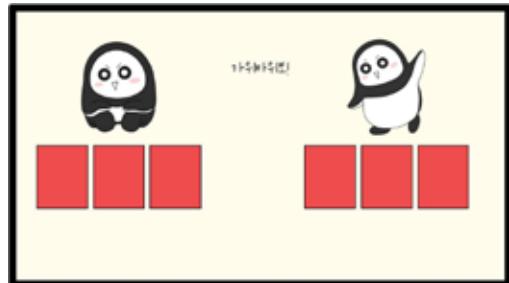
④ 카드를 모을 작전을 세움과 동시에 다른 모둠의 친구를 한 명 만난다. 자신이 속한 모둠의 친구는 만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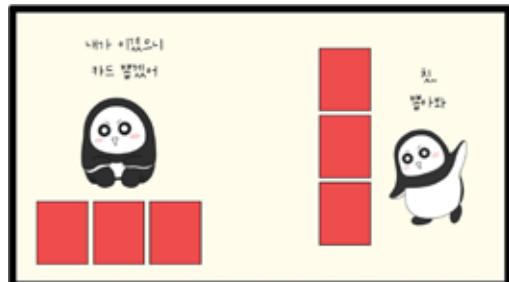
확인 후 일어나 자신의 모둠을 제외한 친구 만나기

수업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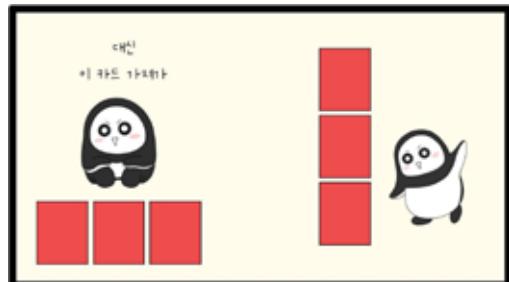
- ⑤ 만약 틀렸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1단계
줄로 가며 이때 반드시 답을 듣고 가야 한다.



- ⑥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카드를
한 장 뽑는다. 카드를 뽑을 때 카드 내용은 볼
수 없다.



- ⑦ 뽑은 카드를 확인한 후 아직 쌍을 모으지
못했다면 다른 상대를 또 만나 4~7번 과정을
반복한다.



- ⑧ 한 장씩 친구와 교환하다 보면 그림과 같이 한
가지 주제에 적합한 세 장의 카드를 모으게 된다.



- ⑨ 한 쌍을 다 모으면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칠판에 체크한다.



⑩ 칠판에 체크하는 방식은 내가 속한 모둠 밑에 자신이 모은 쌍의 주제의 앞 글자만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모둠 학생이 ‘새끼를 낳는 동물’을 모았다면 칠판의 2모둠 밑에 ‘새’라고 적는다.



⑪ 이미 모은 주제는 또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상대와 한 장씩 카드를 교환하며 다른 주제를 모으러 간다.



⑫ 제일 먼저 네 가지 주제를 다 모은 모둠이 승리하게 된다.



이종대왕 꿀팁



같은 모둠의 학생과 카드를 교환할 경우 자신의 편에 필요한 카드를 대놓고 넘겨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둠의 학생과만 만나야 한다. 다만 한 쌍의 카드 내용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모둠 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종혁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놀이 활동은 아래의 링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 이종대왕

blog.naver.com/ljh6969



TV 이종대왕

youtube.com/@kingleejong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활용한

실생활 연계 과학 수업하기

백기령
와동초등학교 교사



미래엔 과학 교과서
살펴보기

6학년 대상의 수업은 다른 학년보다 가르쳐야 할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과목을 준비해야 하기에 교사의 부담이 큽니다. 이 가운데 제일 번거롭고 부담되는 과목이 과학이었습니다. 필요한 실험 준비물이 많고, 실험을 하다 보면 종종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실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오랜만에 6학년 아이들을 다시 만나 과학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이동하면서 전임지에서 사용했던 교과서가 아닌, 미래엔 과학 검정 교과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과서 사용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미래엔 교과서로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 준비를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해 주고 학생이 과학 개념을 깊이 있게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알찬 과학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미래엔 ‘과학’과 ‘실험 관찰’ 교과서 표지는 빨리 펴 보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표지를 보며 1학기 때랑 무엇이 달라졌는지 서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의 디자인과 교과서 표지 뒷면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적용된 특별한 인쇄 기술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과서 중간중간 캐릭터와 함께 들어가 있는 도움 자료들은 교사들이 수업 중 당연하게 생각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잊지 않고 체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와 연관된 실생활 소재를 다른 ‘단원 열기’는 모든 학생이 기다릴 만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활동해요’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과 핵심 역량을 키우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다룹니다. 실험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학생, 교사 모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실험을 진행하며 부족했거나 의문이 들었던 내용은 보조 자료인 지도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도서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활동지를 만들 때에도 자주 활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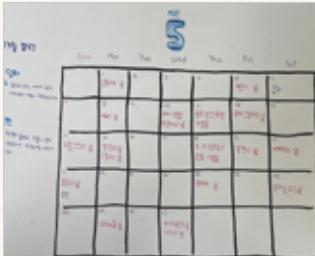
‘마무리해요’는 창의·융합 활동을 하며 과학과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나 다양한 직업 이야기를 통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업 탐험하기’는 생활과 연관된 주제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시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6학년 2학기 ‘계절의 변화’ 단원을 수업한 활동 사례와 학생 소감을 소개합니다.

2. 계절의 변화		
단원 지도 계획	차시	차시명
	1	[단원 열기] 달력이 알려 주는 계절의 변화
	2~3	[1]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4	[2]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 낮과 밤의 길이,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5	[3] 계절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학 이야기)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이용한 한옥의 처마
	6~7	[4] 계절이 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8	[창의·융합 활동] 계절의 모습이 달라진 미래를 상상해 글쓰기
	9	[단원 마무리하기] (과학 이야기) 시각과 절기를 알려 주는 해시계 양부일구

활동 모습(총 9차시)

1차시 [단원 열기] 달력이 알려 주는 계절의 변화



[교사의 한마디]

단원 열기를 활동으로 연결시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 줍니다. 교사의 설명만 듣고는 조상들이 사용한 절기를 학생들이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달에 생일이 있는 학생끼리 모여 그때쯤 나타난 날씨의 특징과 행사를 떠올리며 우리 반 절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단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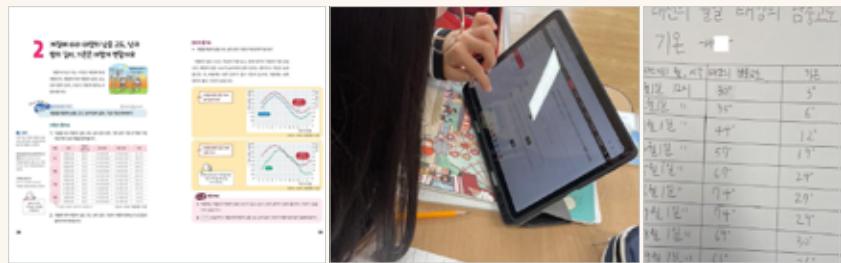
2~3차시 [1]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사의 한마디]

탐구 활동은 교과서를 통해 개념을 익히고, 실험 관찰 활동 후 학생들끼리 교과서의 질문을 이야기해 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 동안의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다음날 기상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 중 기온 측정 시, 백열상을 이용하기 어려워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과정의 설명에 따라 그늘진 곳의 나무에 온도계를 매달아 두고 실험했습니다.

4차시 [2]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 낮과 밤의 길이,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교과서 내용

수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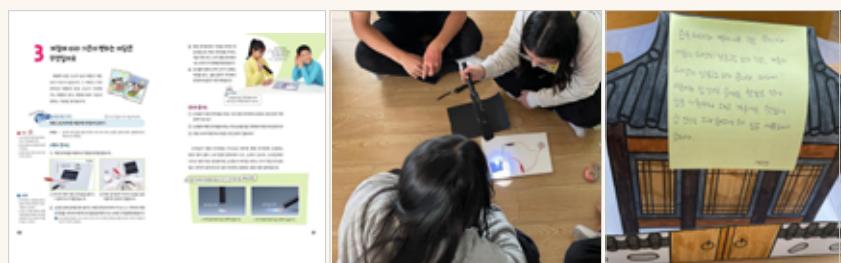
대전시 자료 제작하기

[교사의 한마디]

교과서 도움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집이 잘 제시되어 있어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대전시의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 낮과 밤의 길이, 기온을 조사해 보고 실제 생활하는 대전시의 모습과 비교해 보며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5차시 [3] 계절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학 이야기)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이용한 한옥의 처마



교과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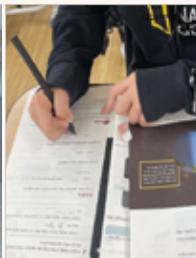
수업 활동

과학적 원리가 담긴
한옥 처마 만들기

[교사의 한마디]

짧게 수록된 '과학 이야기'를 활용해 과학과 미술 수업을 융합하여 수업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한옥의 처마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해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를 이용한 지혜를 찾아보고, 직접 만든 한옥에 적용해 보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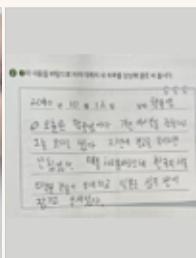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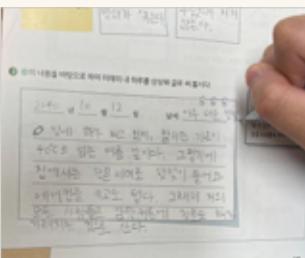
6~7차시 [4] 계절이 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사의 한마디]

교과서에 제시된 도움말을 토대로 교사가 직접 사전 실험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전 실험과 달리 실제로 아이들과 실험을 함께 했을 때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각 모둠의 이끌이들과 먼저 실험을 하여 과정을 익히게 한 뒤, 이끌이들이 모둠별로 실험 과정을 돋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차시 [창의·융합 활동] 계절의 모습이 달라진 미래를 상상해 글쓰기



[교사의 한마디]

'창의·융합 활동'은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줍니다. 2040년 미래의 하루 모습을 상상하여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 실려 있는데, 이때 아이들의 창의력이 잘 드러납니다.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환경적인 측면 등에 집중하여 상상 일기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쓴 일기를 발표하며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까지 연결하여 수업 중 하브 루타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9차시 [단원 마무리하기] (과학 이야기) 시각과 절기를 알려 주는 해시계 양부일구



교과서 내용



수업 활동



역할극 하기

[교사의 한마디]

'과학 이야기'를 다루며 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의 소재인 양부일구에 대해 시청각 자료로 알아보고, 그 당시 농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모둠별로 상의 후 역할극으로 표현했습니다. 농사의 중요성을 역할극으로 다루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부일구를 표현하여 시각과 절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학생 소감을 소개하며 미래엔 교과서 활용 수업 사례를 마치고자 합니다.

[학생 소감]

교과서로만 수업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역할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미술과 연결하여 한옥 처마의 원리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2040년 상상 일기를 썼던 수업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미래에는 여름이 지금보다 더 더워 질 것이라고 상상하니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깨끗하고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대전의 자료를 직접 누리집에서 찾아본 것이 인상 깊었어요. 교과서에는 대전이 아닌 서울이 예시로 나와 아쉬웠는데,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활동을 통해 대전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진짜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N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활용한 알차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하기

조상현
신대초등학교 교사



과학 교과 전담 교사를 하면서 지난 2년간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고, 올해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인 미래엔의 과학 교과서로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국정 교과서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검정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과 비교했을 때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이 잘 담겨 있을지, 빈약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미래엔 교과서는 알찬 과학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를 처음 열었을 때 각종 삽화와 실험 장면들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개념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만드는 시각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엔 교과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들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각 단원별로 첫 차시에 ‘단원 열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단원의 성취 기준을 포함하는 흥미로운 마술, 만들기 활동 등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습 의욕을 둡울 수 있게 하여서 수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 기체를 이용한 촛불 마술,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열 변색 붙임딱지를 활용한 안전 컵 만들기)

그리고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안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매 차시마다 붉은 글씨로 안전 수칙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기존 국정 교과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 수칙을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안전한 실험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고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 디지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엠티처를 통해 교과서의 수업 내용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 장면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전과 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수업을 준비할 때 전후 과정을 미리 살펴보기 좋습니다. 교사가 실험을 직접 해 보지 않고도 영상으로 미리 확인하면서 학생들과의 실제 실험 활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론 수업이나 과학 실험에서 머물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6학년 2학기 3단원의 ‘연소와 소화’ 수업을 예로 들면, 단순히 연소와 소화의 개념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양한 화재 사고, 화재 안전 대책을 직접 찾아보게 하여 학습 내용을 직접적으로 체득하게 합니다. 교실에서 배우고 끝나는 수업에서 더 나아가 학습 범위를 우리 주변에서 펼치고 확장시킴으로써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수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도입

호기심을 채우는 단원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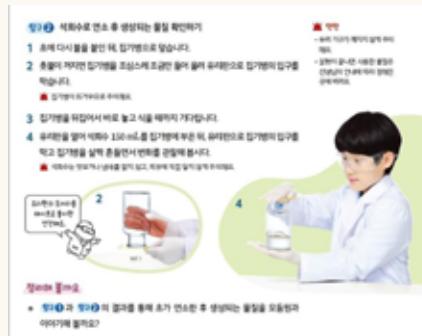
도입 부분에서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눈에 제시하여 앞으로 나올 개념을 접하는 기회를 줍니다. ‘단원 열기’에서는 단원과 관련한 재미있는 마술이나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동안 과학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만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실험과 만들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과학 수업이 어렵고 딱딱한 실험의 연속이었다면, ‘단원 열기’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만들기 등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고취할 수 있습니다.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에서는 ‘단원 열기’로 ‘기체를 이용한 촛불 마술’ 활동이 나옵니다. 집기 병에 묽은 과산화수소수, 감자껍질을 넣고 조금 시간을 둔 뒤, 촛불과 향불을 갖다 대었을 때 불이 훨씬 커진다는 학습 내용입니다.

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등의 과정을 간단한 실험의 형태로 보여 주고 있어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실에 있는 재료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재료를 함께 조합해서 과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단원 열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시작하다 보니 차시를 이어 가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는 나름의 뿌듯함도 있습니다.

전개

친절한 실험 과정과 풍성한 창의·융합 활동



탐구 활동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단원별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학습량을 제시합니다.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에서는 물질이 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연소한 후에는 무엇이 생성되는지,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재 안전 대책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배웁니다. 차시 내용별로 꼭 필요한 탐구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념 공부와 실험을 통한 이해가 잘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탐구 순서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의 설명 없이도 학생들이 실험을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 반드시 보안경,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착용해요.
- 실험 전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요.
- 불을 다룰 때에는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요.
- 뜨거운 것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반코팅 면장갑을 써요.
- 점화기로 장난치지 않아요.
- 살徘徊하는 동안 연기를 마시지 않게 주의해요.

지도상의 후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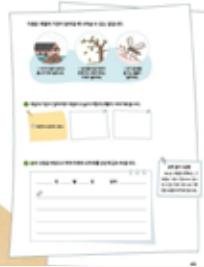
- 이 차시는 초·연소와 소화 현상에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단계이므로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 단순히 촛불을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점화기로 불을 붙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촛불이 꺼질 때에는 어떠한지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서사상의 유의점

- **교과 책** 이 차시는 과학과 교과 역량 중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발달하도록 구성했다.
- 이 차사에서는 발견 학습 모형을 적용했다.
- 이 차사에서는 다양한 불꽃을 관찰하여 물질이 연소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을 알아본다. 촛불과 알로우랜드의 불꽃을 관찰한 뒤에는 불을 붙이기 전의 각정이나 무게, 타고 난 후의 특성이나 두께, 모양 등을 여러 가지 관찰에서 차세워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 이 차사에서는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안전과 지도상의 유의점

미래엔 과학 교과서는 안전을 중시하여 매 차시 실험 주의점에 대한 유의점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험 전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영상 자료에도 중간중간 안전 관련 내용이 있어서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사를 위한 도움말이 있어서 수업 시 유의사항, 실험 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활동과 과학 이야기

교과 내용이 끝난 후에 살펴볼 수 있는 '창의·융합 활동'과 '과학 이야기'를 차시에 넣었습니다. '창의·융합 활동'은 배운 내용과 관련한 일상생활 속 내용과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실에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과학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주며 사고를 확장시켜 줍니다. '연소와 소화' 단원에서는 연소, 소화의 개념을 익힌 뒤에 우리 학교 화재 대피도 만들기, 화재와 관련된 직업 소개 등 국어, 미술, 진로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학습을 전개합니다. '과학 이야기'는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데, 단원 내용과 관련한 역사, 지식, 진로 등으로 사고를 확장시키기 좋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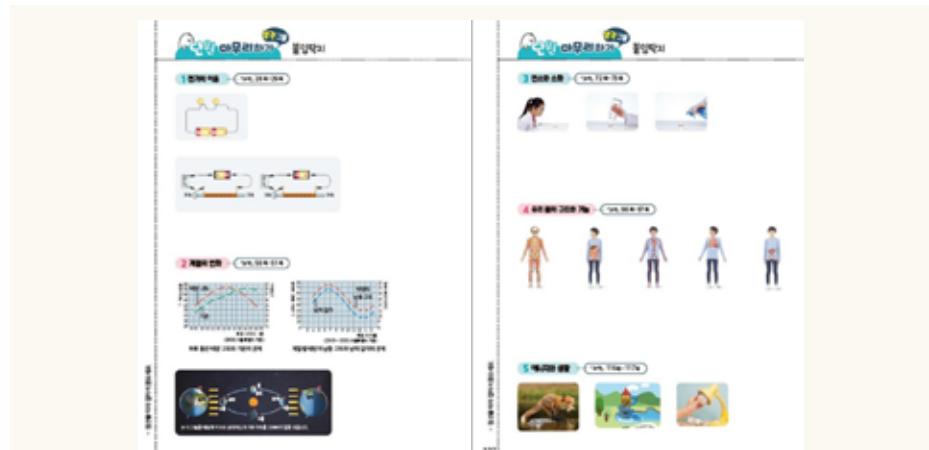
정리

스스로 평가하며 마무리하는 학습



단원 마무리하기

'단원 마무리하기' 탐구 내용과 실험 관찰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자료에 스티커, 그림 등이 많아 학습 내용을 정리하기 수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관찰에 실험 결과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구성한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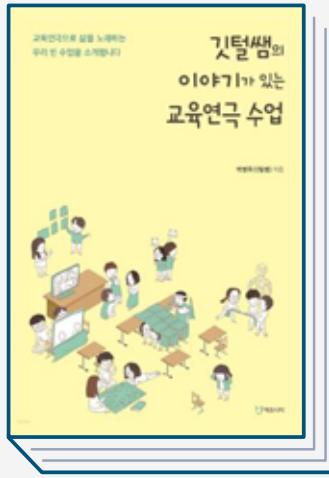
붙임딱지

붙임딱지로 답을 찾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한 번 더 익힐 수 있습니다. '연소와 소화'에서는 연소의 조건, 연소 후 생성 물질, 소화의 조건, 연소와 소화를 차례로 정리하여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 영역을 마무리 차시에서 다루면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보조 교과서인 실험 관찰 교과서에는 스스로 학습 내용을 피드백해 볼 수 있는 '문제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대략 5~6문제가 수록되는데 문제의 품질이 좋고, 핵심 내용을 출제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수업 재료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며 과학 개념과 실험 결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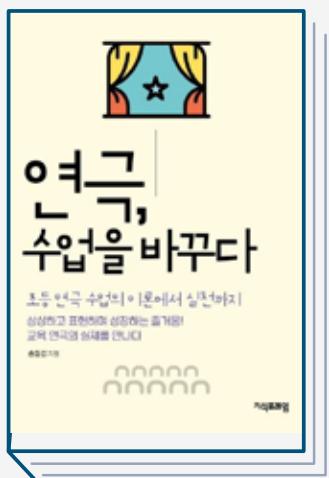
이 책을 소개합니다



『깃털쌤의 이야기가 있는 교육연극 수업』

박병주 저, 에듀나티, 2022

교육연극과 미디어 분야 연구 모임에서 활약하는 깃털쌤 박병주 교사가 그간의 수업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연극 놀이, 드라마 기법 등 유용한 연극 기법을 소개하며 '연극'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면서 교과 과정에 연극적 요소를 풀어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깃털쌤의 수업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연극적 요소가 아이들 간의 소통과 수업 몰입에 최고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연극, 수업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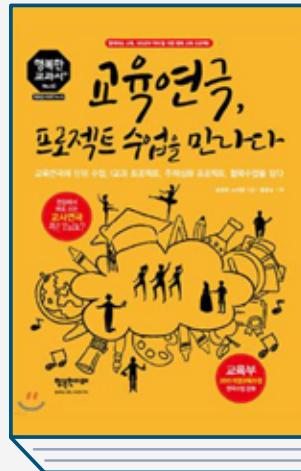
송칠섭, 지식프레임, 2020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연극 수업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교사가 연극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극 수업을 잘 꾸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낯설지 않게 연극 수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 현장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교육연극에 대해 깊이 고민한 현직 교사가 교육연극 실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육연극, 프로젝트 수업을 만나다』

권경희, 노미향 저, 행복한미래, 2019

이 책은 저자가 좋은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과 교육연극에 기대어 길을 묻고, 그 속에서 고민하는 교사들과 교육연극 수업을 공유하고자 집필한 책입니다. 딱딱한 의자에 종일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공간적 자유를 느끼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수업, 그래서 작은 몸짓으로나마 내면을 표현하는 수업이 교육연극 수업입니다.



『선생님의 학교 생활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창, 김현선, 이은혜, 이종호 저, 우리학교, 2023

저경력 교사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에 혼자 부딪힐 때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경력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때 현명한 해결책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경력 교사들이 막막할 때마다 수시로 펼쳐 볼 수 있는 책, 찾아가서 배움을 청하고 상의할 수 있는 옆 반 선생님 같은 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초등 전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래엔 초코’ 출시

전 과목 핵심 학습부터 영역별·수준별 과목 전문 학습까지



초등 공부의 코어(Core)를 다져줄 ‘미래엔 초코’가 2023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미래엔 초코’는 별도의 약정이나 학습 패드를 구매할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는 초등 전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초등 전 과목 학습 서비스인 ‘초코팝’과 AI기반의 영역별·수준별 맞춤 문해력 ‘달달독해’, 수학 학습 서비스 ‘달달수학’이 ‘초코플러스’로 구성됐습니다.



‘초코팝’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춘 월별 학습량을 제안하여 자기 주도적 목표 설계가 가능하고, 과목별 맞춤 개념 영상과 메타인지를 활용한 ‘개념카드’로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달독해’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주)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가 산학 협력 개발한 ‘LQ 독해력 검사’를 바탕으로 한 AI 독해력 강화 솔루션입니다. 15가지 독서 성향 진단과 독해력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분야별 지문을 추천해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합니다. ‘달달수학’은 실력에 맞춘 AI 수학 실력 강화 솔루션으로, 16가지 학습 유형 테스트와 학습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한 하루 30분 분량의 개별 맞춤 수학 학습 코스를 제공합니다.

초등 필수 개념 학습을 완성하는
자기주도 학습



✓ 전 과목 핵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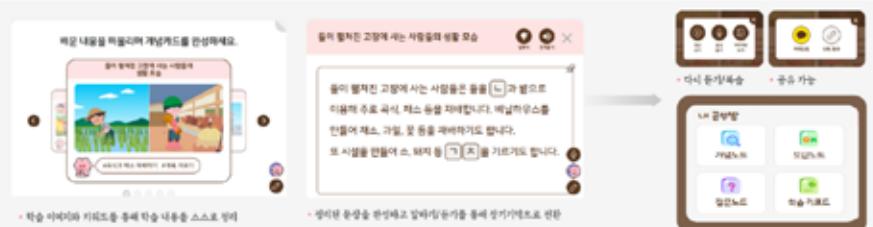
✓ 과목별 성취기준에 맞게 최적화된 <개념 영상>

학습자 집중도를 높이는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 교과 전문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 톡톡(Talk Talk)! 메타인지로 깨우는 말하는 <개념 카드>

빈칸 채우기, 따라 읽기 등 직접 설명하며 익히는 주제 속 핵심 개념



✓ 학년별 담당 교사가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수업 <초코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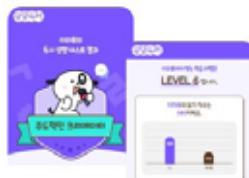
즐거운 활동과 게임으로 복습하는 참여형 수업과 오답 집중 풀이 중심의 라이브 문제 풀이 수업



나의 공부 스타일에 맞춘
AI 독해력 강화 솔루션



독해 현황 분석



독서 성향 테스트

미래엔과 다음커리어(주)가 공동으로 개발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독서 성향을 15가지로 분석

독해력 테스트

미래엔과 (주)날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독해지수 M-LQ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독해력 측정

AI 지문 추천 시스템



개인 맞춤 지문 추천

독서 성향과 독해력을 파악하여 AI가 개인별로 지문을 추천

고퀄리티 독해 지문

서울대 교수와 학부 교수 등 연구·개발한 다양한 유형의 독해 지문 제공

3단계 독해 트레이닝



[1] 어휘 콕콕

핵심 어휘와 확인 문제로 독해력 기본 다지기

[2] 독해 쑥쑥

퀴즈로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끊어 읽기로 독해력 향상

[3] 실력 광광

초등부터 수능 문제 유형으로 학습하고 실력 업그레이드

나의 공부 스타일에 맞춘
AI 수학 강화 솔루션



학습 성향/성취도 분석



아이의 미래 실력까지 예측

- 학습 수준 및 성향 진단을 통한 강/약점 분석
- 분석 결과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목표 설정
- 학습 피드백 및 권장 학습 안내

AI 학습 코스 추천



최적의 학습 경로 제시

- 독서 성향과 독해력을 파악하여 AI가 개인별로 지문을 추천
- 필수학습[개념 학습] → 수준별 학습 → 맞춤 학습) ⇒ 선택학습[계산력 학습 or 고난도 학습]

최적의 학습량 제공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량을 제공하여,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

학습 현황 상세 보고서



[1] 일일 보고서

오늘의 학습 결과 분석을 통한 선택 학습 추천

[2] 단원 평가 보고서

단원 평가 결과 및 취약 개념 분석

[3] 종합 보고서

매월 또래 집단 대비 나의 위치 확인 및 전월 대비 학습 결과 비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초코클래스' 개발 중

초코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기관용으로 개발한 '초코클래스'도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24년 2월 open) 우리 반 진도에 맞춘 맞춤 시간표, 협동 학습, 과제 등 다양한 활동과 평가는 물론 다양한 수업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LMS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시범 학급 모집 중으로, 초코클래스를 무료로 활용해 보고 싶은 선생님, 기관은 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choco@mirae-n.com)

● 우리 교실 수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 **전학년, 전과목 교과 중심**의 학습 콘텐츠 제공

● 학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자습, 복습 대용** 맞춤 학습 시스템

● **놓친 학습,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학년 성취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학습 시스템**

✓ PC 및 각종 모바일 기기로 운영자 모드, 선생님 모드 쉽게 접속

초코로 더 빠르고 편하게 우리 반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기관 운영자	선생님
01 쉬운 계약 관리	01 편리한 학급/학생 관리
- 계약 내용 확인	- 나의 학급/학생의 이용현황 & 리포트를 한눈에 보는 대쉬보드 제공
- 실제 사용 현황을 체크 하여 비용 확인	- 학생 수원 날어도 학생 아이디/비밀번호 한번에 발급
02 우리 교육기관·학교 사용 현황을 한눈에	02 우리반 학생들의 학습을 빠르게 세팅
- 대시 보드를 제공하여	- 과목별 학습 커리큘럼은 초코에서 제공
- 전체 선생님별, 학급/학생의 사용 현황을 확인	- 횟수, 요일만 선택하여 시간표 세팅
03 전체 선생님 아이디/비밀번호를 한번에 발급	03 학생과 부모님에게 쉬운 초코 사용 안내
- 선생님 수원 입력하여도 전체 선생님 아이디/비밀번호 한번에 발급	- 가정통신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인쇄
	- 부모님 펜드론 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 말링톡/SMS로 알림
	- 초코 앱 설치 QR 제공

✓ PC 및 각종 모바일 기기로 학생 모드 쉽게 접속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든, 초코 앱, 초코 웹으로 쉽게! 함께! 스스로! 공부합니다.

학생

01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나 쉽게 공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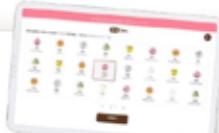
- 태블릿, PC, 모바일로 어떤 곳에서나 쉽게 공부하기
-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포털 검색하여 바로 초코로 공부하기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쉬운 초코앱 설치



02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

- 교실에서 하던 학습 그대로 함께 공부하기
- 우리반 아이들의 초코 온/오프 현황 확인
- 선생님이 공지한 내용 초고에서 확인



03

스스로 공부하기

- 선생님이 설정 해준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기
- 전단원, 전학사, 전액별 내가 하고 싶은 학습 스스로 공부하기
- 자동 재생, 내의 리포트 쉽게 확인하기
- 오답노트, 개념노트로 나의 학습 관리



✓ 선생님이 편리하게 수업할 수 있는 학습 코스웨어

초코 클래스의 수업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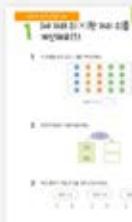
자습/예습/복습 과목



+ 특화 프로그램 상시 업데이트

- 자습/예습/복습 과목 외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상시 업데이트

② 성적 및 평가



- 학생별 성취도
- 학급 성취도
- 과목별 성취도

③ 커뮤니케이션

- 아이들의 질문에 초코 전담 선생님 답변/관리

④ 초코만의 수업 자료

- 과목별, 유형별 수업자료 제공
- 교과 중심 자료
- 학기 업데이트

⑤ 특별한 서비스

- 학습툰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우리 아이 속도로 가는
상위권 도달 솔루션

스마트하게 大コ 하세요!

무약정

기간 약정, 기기 약정 없이
학습 기간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월 9,500원

각 서비스 별 월 9,500원,
3서비스 결합 시, 월 19,000원
부담 없는 교육비

초등 핵심 학습 완성

초등 국어교과서 발행
초중고 교과서 정유율 1위
하루한장, 문해길 베스트셀러
참고서를 개발한 노하우 그대로

아래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1,000포인트를 드립니다!



미래엔 초코
안드로이드 앱 설치하기



미래엔 초코
무료체험 신청하기



미래엔 초코
영상 보러 가기



교육 공모전 ‘제10회 미래교육상’ 접수 시작



선생님에 의한, 선생님을 위한 교육 공모전

제10회 미래교육상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뜻있는 선생님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모접수 2023.09.21(목) ~ 2023.12.31(일) PM 12:00

수상자 발표 2024.02.08(목)

시상식 2024.02월 중 진행(추후 공지)

제10회 미래교육상
응모 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 미래교육상 관련 문의는 mjmira@mirae-n.com로 부탁드립니다.



주 최 (재)목정미래재단

후 원 (주)미래엔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현직 교사(개인 또는 팀) ※ 교과 및 경력제한 없음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공모분야 미래교육연구/ 인성교육혁신/ 특수교육연구/ 동화·인문도서기획안/ 미래키움

시상내역 총 상금 3,600 만원

접수방법 미래엔 엠티처 홈페이지 www.m-teacher.co.kr

공모 분야	공모 주제	제출 서류 및 응모 대상
미래 교육 연구	<p>미래 교육 활동 및 연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온오프 체험형 수업 자료 등을 활용한 수업 연구 사례 - 4차 산업혁명·환경 등 사회 및 환경 관련 중요 트렌드 체험 활동형 수업 사례 <p>미래형 교수 서비스·교육 사업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가상현실, 메타버스, 학교 현장 서비스, 학습 서비스 등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또는 사업 모델 제안 	<p>20p 이내의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p 요약문 - 사진, PPT 등 보조자료 * 미래 교육 연구 우수 수상작은 엠파이어 서비스 및 사업화 검토
인성교육 혁신	<p>인성교육 연계 활동 및 연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융합, 주제 융합 통한 인성 교육 수업 연구 사례 	<p>응모대상(개인 또는 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교육 연구/인성교육 혁신 응모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현직 교사 - 특수교육 연구 응모 대상: 특수학교 현직 교사
특수교육 연구	<p>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급 수업 및 교수 연구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우수 교육 사례 또는 특수교육 수업 모델 제안 	
동화·인문 도서 기획안	<p>교과 연계 동화·인문 도서 기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대상 학업 및 인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의 동화·인문 시나리오 - 학교 수업이나 학생 참여 활동 과정에서 창작물 가능 - 교사 및 예비 교사 참가 가능(미래 교육 연구/인성교육 혁신과 별도 심사) 	<p>8p 이내의 기획안과 시나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p 기획안 - 5p 이내의 시나리오 * 팀(다수 인원) 단위 참가 불가 * 우수 수상작은 출간 검토 <p>응모대상(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미래키움	<p>예비 교사 교육 봉사활동 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 사범대생 교육 지도 봉사활동 수기 모집 - 미래엔 사회공헌 활동 참가 학생 대상 <p>교육사회 공헌 활동 아이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출판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육 사회 공헌 활동 아이디어 모집 	<p>10p 이내의 보고서 및 아이디어 기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p 요약문 - 사진, PPT 등 보조자료 * 팀(다수 인원) 단위 참가 불가 * 우수 수상작은 미래엔 CSR 사업 검토 <p>응모대상(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교사(교대/사범대 또는 교육학과 재학생)

*'미래교육상'은 미래엔 교수활동지원 플랫폼
'엠파이어' 공모전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미래교육상’의 분야별 주요 수상작 주제

창의성을 키우는 학습 활동부터 숲세권 프로젝트까지

- 장치 제작 스토리텔링 물리 수업 실천으로 학생 과학 창의력 자극
- 자기 성찰과 몰입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 교수·학습 활동
- 질문과 토론으로 하는 수업

- ‘그림·수화·문자’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이 청각중복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 쓰기 유창성이 중·고등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창의적 체험 활동(학생 자율 동아리) 연계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한 과학 교육 활성화

- ‘사랑과 웃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A.L.L 바른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소중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
- 공동 창작 활동을 통한 학교 광장 만들기
- ‘행복 꽃길 로드’ 프로그램을 통한 성격 5요인 성장하기

- 애플리케이션 활용 인권영화음악 제작 활동으로 세계 시민의식과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기르기
- ‘상상만개(상상하고 만들고 공유&개선하기)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핵심역량 기르기
- Flipped D·I(거꾸로 된 직접 교수법) 적용 ‘읽기 이해 증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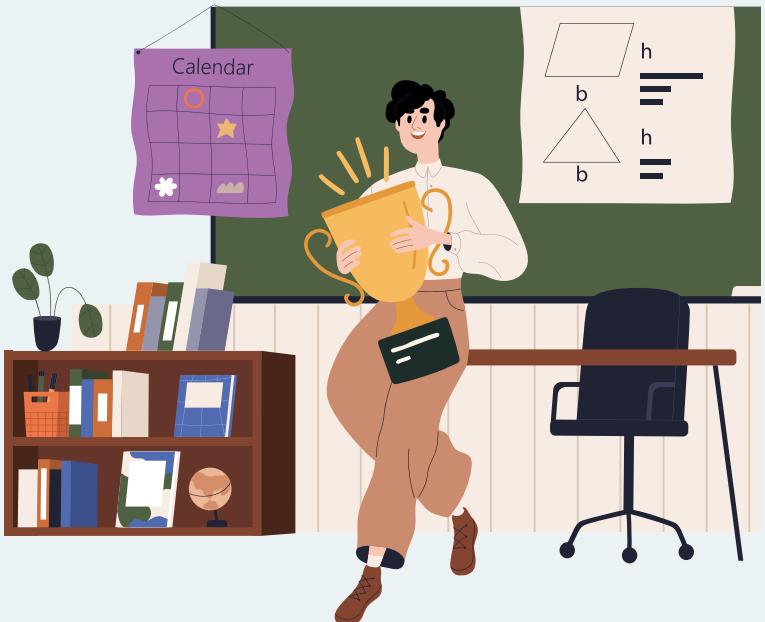
- ‘교사-학생의 라포 형성과 상호협상 단계 매뉴얼’을 통한 혁신적인 인성교육 실천
- ‘산(S.A.N.)을 거닐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숲세권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 교실 만들기
- 우리 동네를 달리며 찾아가는 ‘함께’의 의미



역대 수상작은 ‘미래교육상’
명예의 전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상’, 이렇게 준비했어요!

역대 수상 선생님들의 공모 꿀팁



수업 과정을 기승전결로 정리해 보면 연구 과제가 떠오를 거예요!

김재원 선생님(제7회 수상)

저는 미래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 수업의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공모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본인만의 특색 있는 수업 과정에 미래 교육 자원 활용 사례를 연계한 내용이 기승전결의 스토리 형식으로 보고서에 나타나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학습 동기, 수업 설계, 수업 방법, 평가 개선 등)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미래 교육 활용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도 해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보고서에 포함된다면 좀 더 풍성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주제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학생, 교사의 수업 평가적 측면도 보고서에 상세히 제시된다면 더 좋겠지요?



평소 상상만 해 보았던 새로운 수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세요!

이현준 선생님(제9회 수상)

미래교육상은 ‘공감’이라는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다수 선생님이 공감할 만한 문제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어 버린 교실과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수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구가 현재 교육 현장에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상은 ‘포기’보다는 ‘끈기’라는 단어와 잘 어울립니다. 기존에 연구했던 주제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주제로 매년 도전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교육상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교사로서 수상이 주는 행복한 감정을 올해 꼭 느껴 보기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힘!



꾸준한 블로그 활동이 미래교육상 공모전에 도전할 용기를 줬어요!

이한솔 선생님(제8회 수상)

저는 평소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 수업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직전 학기에 진행한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을 다집니다.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매년 수업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수업도 블로그에 정리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글을 쓰며 마음에 담아 둔 아쉬움을 동력 삼아, 매 학기 더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활동은 좋은 수업을 위한 마음가짐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록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미래교육상’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간 수업 활동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고된 작업일 텐데, 블로그에 공들여 남겨 놓은 기록들이 그 수고로움을 덜어 줄 것입니다. 저 역시 백지에서 시작했다면 ‘미래교육상’에 응모할 마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기록해 둔 수업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다 보니 학생들과 함께한 의미 깊은 기억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수업을 보고서로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은석 선생님(제6회 수상)

저는 인성교육 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교직 생활 속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적용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다른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이나 교육을 정리하여 제출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상을 받지 않더라도 수업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인성교육 혁신 부분에 지원하면 그로 인해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체계를 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도 중요하지만 도전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교직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경험을 나눠 보세요!

유승민 선생님(제8회, 제9회 수상)

교육 현장에서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단어들이 많은데, 유독 교사 중심, 공동 연구, 가르침이라는 부분에 저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사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을 만나고, 동료 교사와 마음이 통하는 지점을 찾았을 때 보람을 찾고 생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좋은 교육이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만남이 가르침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즉 시간·장소·공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는 교육공간혁신, 작년에는 미래교육연구 부문으로 지원했습니다. 두 번 모두 동료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공동 창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교육상 참가를 위해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남김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기록으로 남기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의 문서화가 이뤄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동료 교사와 공동 연구를 해 볼 수도 있어요. 기획안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다 보면 저절로 배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곳간에 보물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수업의 뼈대와 피드백을 자료로 남겨 두려 합니다. 미래교육상이 저에게 만들어 준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요. N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생각을 聽합니다

‘디지털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혁신수업N 웹진을 보면서 디지털 수업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태블릿 활용 수업, 코딩 수업 등이 디지털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한발을 들어 놓았다는 생각하니 웹진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수업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았어요. 웹진에서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클래스룸스크린, 감마, 챗GPT와 같은 활용 도구를 나는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수업 사례를 살펴보며 매칭시켜 보았어요. 수업사례를 살펴보니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혁신수업N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임예은 선생님(인천 청천초등학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궁금했는데 혁신수업N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어서 좋았습니다. 기존 디지털교과서와 어떤 점이 다른지, 학생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유익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좋겠습니다!

이해니 선생님(서울 성원초등학교)

‘스마트 기기로 만나는 놀이 수업’ 주제의 글이 좋았어요. 요즘 대세는 놀면서 스마트하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놀이 수업을 알면 학생들과 친해지고 소통도 잘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스마트 기기로 하는 수업 설명을 글과 사진으로만 보니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필하신 선생님께서 실제 활용하는 방법이나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QR 등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깊이 읽고, 생각하고, 참고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내용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권태경 선생님(서울 긍성초등학교)

최신 교육의 핵심인 에듀테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효율적인 학생의 학습관리 및 피드백이 가능한 원격 수업을 위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시기도 표로 한눈에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활용법 연수가 선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소영 선생님(서울 중원초등학교)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마음과 通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혁신수업N』은 온라인 웹진으로 편리하게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엔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에서
 <E-book 보기>와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OVER PEOPLE을 추천해 주세요

『혁신수업N』은 수업 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결과를 전하는
 매거진인 만큼 표지에 선생님의 빛나는 얼굴을 담으려 합니다.
 교사로서의 철학 및 노력이 남다른 선생님을 알고 계시다면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커버 피플을 추천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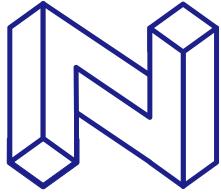
『혁신수업N』의 성장 동력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진솔한 의견입니다.
 이번 호를 보고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칭찬하고 싶은 점, 아쉬웠던 점,
 취재를 바라는 이슈 등을 엠티처(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세요.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신 후기와 제안, 추천이 매거진 제작에 반영될 경우
 커피 상품권(1만 원) 등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혁신수업N』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혁신 수업



Vol. 20 | 2023 | 겨울호 | 초등

선생님을 위한 수업 혁신 전문지

COPYRIGHT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발행인 신광수 | 퍼낸곳 (주)미래엔 | 등록번호 제 16-67호

편집 책임 황은주 | 편집 윤선미, 황선득, 최영아, 전다해

디자인 책임 손현지 | 디자인 김병석, (주)보명씨앤아이

제작 지원 강승훈, 봉대중

촬영 ZARL 스튜디오 | 그림 양승용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주)미래엔이 본 도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본 도서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act Mirae-N

www.m-teacher.co.kr

(우)0653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1800-8890

비매품 이 책은 선생님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무료
증정본입니다.

미래엔 엠티처는 소통과 협력의 미래 교실을 꿈꾸며 선생님의 수업 연구를 지원합니다.

www.m-teacher.co.kr



미래엔 엠티처
바로가기

엠티처

미래엔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www.m-teacher.co.kr

스마트 수업

학생들의 물입을 이끄는 Smart PPT,
듀얼뷰어와 원격제어로 특별한 수업 실현

블렌디드 러닝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미래 교육, 새로운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모든 수업 완성

AI 클래스

실시간 퀴즈와 라이브 워크시트의
맞춤형 학습 관리 솔루션

기초 학력

어휘, 연산 등 기초 학습이 가능한 학습지,
마술, 놀이 등 재미있는 콘텐츠 제공

선
교
과
서
다
생
님
이



미래엔은 교과서로 세상에 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선생님은 각별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엔에게 선생님은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미래에도

선생님,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